

“수도선 녹물·겨울엔 얼어 물난리…재건축 꿈도 못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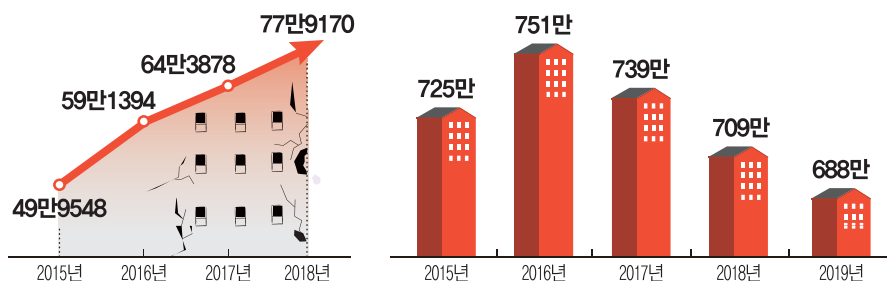
스페셜 e리포트 애물단지 된 지방 노후아파트

“버려진 아파트.” 박영근 관리사무소장은 태화아파트를 이렇게 불렀다. 1978년 입주한 경북 안동시 태화동 태화아파트는 안동에서 처음으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다. 5층 높이로 8개 동이 들어서 370가구가 입주했다.

그 후 42년, 박 소장 표현을 빌리면 아파트는 “늙을 대로 늙었다”. 태화아파트에선 겨울마다 수도관이 얼어 1층부터 5층까지 물난리가 난다. 겨울이 아니더라도 태화아파트의 수도꼭지를 열면 늘 녹물이 나온다. 난방도 엉망이다. 주변 아파트엔 일찌감치 도시가스관이 들어왔지만 태화아파트에선 태반이 중유 보일러를 댔다. 도시가스관을 들여올 비용을 부담할 수 없어서다. 매연이 심하고 난방비가 만만찮아도 주민들은 감내하고 지낸다.

전국 30년 넘은 노후 아파트 추이
(단위 : 가구)

지방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비수도권·비광역시)
(단위 : 원, 12월 3.3㎡ 기준) ※출처: KB국민은행



입주 42년 된 안동 태화아파트
사업성 부진에 재건축 잇따라 무산
35㎡ 매매 가격이 2100만원
370가구 중 90여 가구가 빈집
현상황 방치 땀 '유령도시' 전략

상황을 바꾸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태화아파트 주민들은 1997년께 재건축을 추진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닥친 외환위기로 재건축 추진 작업이 고꾸라졌다. 2009년에도 재건축을 시도했지만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 때문에 흐지부지됐다. 안동시 조례에 따르면 태화동에선 18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다. 박소장은 “일반분양을 해야 재건축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규제가 바뀌지 않으면 아파트를 다시 지은들 주민들을 다 입주시킬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재건축 사업이 추진과 좌초를 되풀이하는 사이 태화아파트 상황은 점점 나빠졌다. 마흔세 살짜리 아파트는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과 외국인 근로자만 사는 아파트가 됐다. 2010년 3800만 원에 매매됐던 이 아파트 전용면적 35㎡형의 거래가격은 현재 2100만 원 언저리로 떨어졌다. 그나마도 90여 가구가 입주자를 찾지 못하고 빈집으로 남아 있다. 특히 엘리베이터가 없어 노인이 오르내리기 힘든 5층은 절반 이상이 비어 있다.

안동 시내 다른 아파트 단지도 태화아파트와 사정이 다르지 않다. 안동시 아파트 3만2242가구 중 1만4793가구가 지은 지 20년이 넘는 노후 단지다. 10곳 중 4곳꼴이다. 이 가운데 재건축이 정식으로 추진되는 단지는 ‘송현주공1차아파트(420가구)’ 한 곳뿐이다. 인근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김재현 대표는 재건축 성사 가능성에 대해 “재건축 구역은 지정됐지만 사업성이 떨어지니 이끌어갈 사람이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태화아파트처럼 애물단지 신세가 된 지방의 노후 아파트가 늘고 있다. 허물고 새

로 지으려 해도 재건축 추진 단계에서 얻어지는 곳이 수두룩하다. 새 아파트로 탈바꿈할 기대감에 몸값이 싼축 아파트만큼 올라간 서울·수도권 단지들과는 다른 세태다.

지방의 아파트가 낡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성 부족이다.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재건축 수익성에 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2016년 12월 3.3㎡당 751만 원까지 올랐지만 지난해 말엔 689만 원으로 8.2% 떨어졌다. 전남이나 경북에선 3.3㎡당 200만 원이 안 되는 아파트도 늘고 있다. 집값이 맥을 못 추는 상황에서 재건축을 강행하다간 공사비 부담만 떠안을 수 있다는 게 지방 아파트의 걱정이다.

미분양 아파트 증가는 이런 걱정을 더욱 키우고 있다. 비(非)수도권의 미분양 주택 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4만5246가구나. 지방 주택 경기가 한참 좋던 3년 전(2016년 11월 3만9347가구)보다 14.9% 늘었다. 인구는 줄고 지역 경제는 악화하는데 새 아파트가 계속 공급된 결과다. 특히 혁신도시나 시·도청 이전 지역을 중심으로 새 아파트가 집중 공급되면서 원도심이 직격탄을 맞았다. 사업성 검토 없이 무작정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미분양 아파트가 돼 주민들이 그 부담을 지게 된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는 “인구 밀집지역이나 도심 같은 경우 한국 토지주택공사(LH) 등이 주도하는 공공 주도 재건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노후 아파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요 단지를 정해서 선별적으로 시범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이어 “재건축이 어려운 지방 아파트의 경우 리모델링 요건을 완화해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LH도 이르면 다음 달 '지방 중소도시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공공 참여 확대 방
 안 연구 용역'을 시작한다. LH는 이번 연
 구에서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 정비사업
 방안을 연구하고 시범사업 후보지를 발굴
 할 계획이다.

박종화 기자 pbell@



마스크 귀경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국내에서 네 번째 '우한 폐렴'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불안감에 휩싸인 시민들이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마스크를 쓴 채 이동하고 있다. 신태형 기자 holjak@

‘우한 폐렴’ 잇단 확진...방역망 또 뚫렸다

국내 환자 4명으로 늘어
며칠간 외부활동해 확산 우려
文 “우한 방문자 전수 조사”
교민 철수 전세기 투입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국내 확진자가 연이어 나오면서 결국 방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 번째 확진 환자는 감염 상태에서 이틀 동안 서울-일산 일대를 돌아다녔고, 네 번째 확진 환자는 감기 증상 5일이 지나서야 폐렴 진단을 받고 격리됐다. 두 확진자 모두 입국 시 이상 증세가 없었고, 이후 증상이 나타나 지역 내 감염 우려도 커졌다.

▶ 관련기사 4·5·8면

질병관리본부는 27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머물다 20일 귀국한 55세 한국인 남성이 '우한 폐렴' 감염자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앞서 세 번째 환자에 이어 하루 만에 한 명이 추가된 것이다.

‘우한 폐렴’ 세 번째 환자 이동 경로

- ★ 20일 일국

22일 발열, 오한 증세(헨터카로 이동)
 강남구 성형외과(글로비 성형외과) · 식당 ·
 호텔(호텔뉴비) 이용
- 23일 한강 산책 및 편의점(GS 한강점원 1호점) 이용
 → 역삼 · 대치동 음식점 이용
- 24일 성형외과 재방문 → 일산 음식점 · 카페 이용
 → 일산 모친집 체류
- 25일 기침, 가래 증세
 일본 콜센터(1339) 신고 후
 보건소 구급차로 일산 명지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 이송돼 격리
- 26일 확진

문제는 입국자에 대한 관리 부실이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입국 시 증상이 없다면 별도의 조치 없이 문자 등 안내만 시행했다. 이 때문에 네 번째 환자는 입국 후 무려 5일 동안 외부 활동을 했다. 이 남성은 20일 귀국한 뒤 이미 21일 감기 증상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 하지만 별다른 격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25일 38도의 고열과 근육통을 호소하며 같은

병원을 재방문, 이후 보건소 신고 후 능동
감시 대상에 올랐다.

앞서 세 번째 환자도 20일 귀국 이후 오한 등의 증상이 발생했지만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강남의 병원과 식당, 한강, 일산에 있는 음식점과 카페 등을 돌아다녔다. 이후 25일에는 보건소에 신고한 뒤 유증상자로 분류됐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보건복지부는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차 회의를 열어 우한 폐렴 확산 우려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급 청와대 참모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우한 폐렴’과 관련해 중국 우한 지역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추진하리”며 “필요할 경우 군 의료 인력을 투입하고, 군 시설까지도 활용해 대비하리”고 지시했다.

또 정부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체류 중
인 500~600명으로 추산되는 한국인 수송
을 위한 전세기 투입과 관련해 최종 검토
중이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KB알뜰폰 ‘리브엠’ 혁신금융 메기로 부상

한 달 만에 가입자 1만 돌파...“맞춤형 서비스로 100만 달성”

금융권 최초 앞장본 '리브엠(Liv M)'이 출시 한 달 만에 가입자 1만 명을 돌파했다. KB금융그룹은 올 상반기 요금제를 세분화하고 하반기에는 맞춤형 금융상품을 출시해 운종구 KB금융 회장의 '혁신금융'을 달성시켰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9면

27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리브엠 가입자는 지난달 16일 본격 출범한 이후 이달 22일까지 1만1574건의 신규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했다. 지난해 10월 28일 내부 직원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론칭한 후 12월 초까지 가입자가 2000명 내외였던 점을 고려하면 총 가입자

는 1만300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전체 알뜰폰 가입자가 30만 명이나 줄어드는 악조 건에서도 KB 리브엠은 기존 알뜰폰 가입자와 함께 이통 3사 가입자를 끌어 모았다”며 “반값 할인 프로모션을 앞세워 최근 한 달간 리브엠 가입자가 급격하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시범기간 이후 서비스를 정식 출시하면서 내달까지 가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12개월 동안 LTE 무제한 요금제를 반값에 이용할 수 있는 파격적인 할인 프로모션 제시했다. 해당 서비스는 다음

달까지 진행된다. 그 결과 출시 이후 두 달 간 전체 가입자의 93%가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KB는 중장기 목표로 잡은 가입자 100만 명 달성을 위해 올해 승부수를 띄운다. 우선 상반기 중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요금제를 세분화한다. 기존에는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요금제로 비교적 단순했는데 여기에 청소년 요금제 같은 특성 요금제를 추가로 출시한다. 동시에 자급제 단말기도 다양화한다. 하반기에는 통신과 금융을 결합한 본격적인 혁신금융 서비스를 내놓는다. KB금융 고객을 대상으로 예금리리는 더 주고 대출리리는 낮추주는 '맞춤형 금융상품'을 출시한다.

리브엠은 21일 '당일 유심배송' 서비스를 도입해 통상 3~4일이 걸리는 배송 기간을 하루로 단축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삼성전자 부회장〉

“과감하게 도전”… 브라질서 ‘100년 삼성’ 외친 이재용

설 연휴 삼성 마나우스 법인 방문
“현장서 흘린 땀, 미래의 자양분”
중남미 사업 점검·임직원 격려
파기환송심 등 위기 속 혁신 의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은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에서 나온다. 과감하게 도전하는 개척자 정신으로 100년 삼성의 역사를 함께 써 나가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설 연휴 기간 중남미를 방문, 글로벌 현장 경영을 이어가며 했던 말이다. 파기환송심 재판 등 불확실한 변수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혁신을 지속해서 이어나가겠다는 의중으로 해석된다.

이 부회장은 27일(현지시간) 브라질 북부 아마조나스 주에 자리한 삼성전자 마나우스 법인을 찾았다. 한중희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과 노태문 신입 무선사업부장(사장) 등도 동행했다.

마나우스 생산법인은 스마트폰과 TV, 생활가전 등을 만들어 중남미 시장에 공급하는 중추적 생산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현지시간) 브라질 북부 아마조나스 주에 있는 마나우스 인근 식당에서 현지 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특히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경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2001년 처음 방문한 해외 사업장이 마나우스 생산법인이다.

이 부회장은 생산라인을 둘러보며 “오늘만 이국의 현장에서 흘리는 땀은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명절에 일하는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그는 28일엔 중남미 사업을 총괄하는 브라질 상파울루 법인을 찾아 현지 사업전략을 점검하고,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캄피나스 공장도 방문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최근 임직원들에게 혁신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2일에는 화성사업장에 있는 반도체연구소에서 세계 최초 3나노 공정기술을 보고 받으며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며 “역사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11월에 열린 삼성전자 창립 50주년 행사에서는 “50년 뒤 삼성전자의 미래는 임직원들이 꿈꾸고 도전하는 만큼 그 가능성이 열린다”며 “앞으로 50년, 마음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주요 현장 방문 일지

연도	날짜	행사	발언
2019년	8월 5일	삼성전자 및 전자 계열사 사장단 회의	“긴장은 하되 두려워 말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자.”
	8월 20일	SSAFY 광주 교육센터 방문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은 IT 생태계 저변 확대를 위해 필수적이다. 어렵더라도 미래를 위해 지금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
	9월 11일	삼성전자 서울 R&D캠퍼스 삼성리서치 방문	“불확실성이 클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흔들림 없이 하자.”
	11월 1일	삼성전자 창립 50주년 기념식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세계 최고를 향한 길이다.”
	11월 6일	글로벌 석학과 만남	“더 큰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생각의 한계를 허물고 미래를 선점하자.”
2020년	1월 2일	화성사업장 반도체 연구소	“역사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1월 27일	브라질 마나우스 법인	“과감하게 도전하는 개척자 정신으로 100년 삼성의 역사를 함께 써 나가자.”

꿈꾸고 상상합시다”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현실에 안주해서 안 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이 부회장은 혁신 성장 속 준법경영을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방한 중인 마르쿠스 발렌베리 SEB(스톡홀름은행그룹) 회장과의 만남이 양사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발렌베리그룹은 오너가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책임)를 실천하는 대표 기업으로 꼽힌다.

작년 11월에는 인공지능(AI)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요슈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학 교수, 세바스찬 승 프린스턴대학 교수와 만나 삼성전자의 AI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일본 1, 2위 통신사인 NTT도코모, KDDI 경영진과 만나 통신사업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삼성전자가 이달 초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한 것에도 이 부회장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 진보성향 법조인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의 대표변호사(전 대법관)를 위원장으로 법조, 시민사회, 학계, 회사 등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7명으로 꾸려졌다. 김 위원장은 “이 부회장이 (준법감시위원회의) 완벽한 독립성을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다보스에서 주목받은 ‘최태원식 사회적 가치’

‘노벨상’ 스티글리츠 교수 “기업-사회 동반 이익 SK의 방법론 매우 큰 의미”

노벨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등 세계 정치·경제 지도자들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 경영’을 일제히 호평했다.

27일 SK그룹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이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소개한 ‘SK의 사회적 가치 추구 노력과 성과’에 대해 글로벌 석학과 관련 단체의 지지가 잇따랐다.

최 회장은 세계 정치·경제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다보스포럼의 공식 초청

을 받아 ‘아시아 시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세션에 패널로 참여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SK의 사회적 가치 경영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최 회장은 “재무제표로 기업의 재무성과를 측정하듯,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성과를 키워 가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사회성과 인센티브(SPC)’ 도입을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 이후 SK는 사회적 가치 측정방법을 개발하고 2014년부터 사회적기업에, 2018년

부터는 SK 관계사에 SPC를 도입했다. SK 관계사들은 현재 사회적 가치를 회사 정관에 반영하고 성과를 측정해 공표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사회적 가치 추구 노력에 대해 다보스포럼에 참가한 세계적 석학과 경제 지도자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기업이 주주뿐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담보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SK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SK가 환경이나 사회에 어떤 이바지를 하는지



최태원 SK 회장이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 콩그레스센터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공식세션에서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 회장, 로라 차 홍콩증권거래소회장, 고쿠부 후미야 일본 마루베니 회장,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사진제공 SK그룹

확인할 수 있도록 방법론을 제시한 것은 이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SK가 사회적 가치 경영을 반영해 정관을 변경한 점을 여러 차례 언급한 스티글리츠 교수는 “최근 미국 기업들이 주주 이익 극대화 추구에서 벗어나겠다고 하지만

아직은 말뿐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경제 규모(GDP)의 극대화화가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안위와 복지를 최대화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기업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 등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한국가스공사는

연소 시 공해물질이 거의 없는 무공해 청정에너지 천연가스로

건강한 지구를 만들어 갑니다.

한국가스공사



이 새싹은
나중에 울창한 숲을
만들거립니다

2018년 한국가스공사 콘텐츠 공모전에서 입선(금상) 한 수상자의 작품입니다.

다급해진 中 ‘비상사태’ 돌입… 후베이성 봉쇄작전

확진 환자 2800명 넘어
하루 만에 833명 급증
감염 확산 차단에 역부족
춘제 연휴 연장… 개학 연기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신종 코로나)’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시진핑 정권이 전면전에 돌입했다. 그러나 감염이 중국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것은 물론 세계 곳곳에서도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2002~2003년 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SARS·사스)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홍콩과 대만, 마카오를 포함해 중국 전체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 수가 2806명으로 늘었으며 사망자는 81명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불과 하루 만에 확진자 수가 833명, 사망자는 25명 각각 증가했다. 사망자가 한꺼번에 20명 이상 늘어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완치 후 퇴원한 환자는 51명으로 큰 변동이 없었지만, 중증환자는 461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아울러 베이징에서 9개월 영아도 우한 폐렴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정부는 비상사태에 돌입, 춘제(설날) 연휴를 연장하는 등 극약 처방을 총동원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이달 30일까지였던 춘제 연휴를 다음 달 2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여행자들이 신종 코로나를 퍼뜨리는 것을 막고자 아예 연휴를 더욱 늘린 것이다. 또 2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전국 각 대학과 초중고, 유치원 개학도 연기할 것을 지시했다.

중국 대륙은 현재 전 세계 감염자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가 확산하는 가운데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블룸버



중국 후베이성에 위치한 우한대학 중난병원의 집중치료실에서 24일(현지시간) 보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우한/신화연합뉴스

그통신은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고자 중국 정부는 전날 야생동물 거래 금지령을 선포했다. 신종 코로나는 우한의 한 수산물시장에서 처음으로 발생했으며 이곳에서 거래된 야생동물이 감염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 농업부와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임업국은 전날 공동 성명에서 “이번 사태가 끝날 때까지 야생동물 매매와 사육, 다른 지역의 수송을 모두 금지한다”며 “소비자들은 야생동물을 먹는 것이 건강상 위험하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야생동물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단속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태가 끝난 뒤 다시 거래를 허용하면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춘제 연휴가 한창이던 25일 이례적으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를 긴급 소집, ‘전염병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신종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인 영도소조도 신설했다.

그러나 감염 확산 우려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중국 정부는 바이러스 진원지인 우한시를 포함해 후베이성의 13개 도시와 지역을 봉쇄했지만, 저우셴왕 우한 시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 전염병과 춘제로 봉쇄되기 전에 이미 약 500만 명이 우한을 떠났다”며 “현재 약 900만 명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마샤오웨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주임은 전날 “사스 때와 달리 이번 신종 코로나는 1일에서 14일에 이르는 잠복기에도 전염될 수 있어 대응하는 것이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며 “또 바이러스가 인간에 적응해 전염력이 더욱 커지는 것처럼 보인다. 돌연변이를 일으켜 더 많은 사람에게 감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2360명의 군과 민간병원 의료진을 우한으로 급파했다. 또 마 주임은 “우한에서 2400개 병상이 추가됐다”며 “정부는 앞으로 사흘 안에 5000개 병상을 더 추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우한 내 의료시설이 밀려드는 환자를 감당할 만큼 충분하지 않아 현지 의료시스템이 붕괴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경고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美, 자국민 대피 전세계 투입

국제사회 ‘우한 폐렴’ 공포

日, 환자 강제입원 조치 꺼내
홍콩, 후베이 주민 입경 불허

일명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전 세계가 비상에 걸렸다.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에서 시작된 이 바이러스는 중국 전역을 거쳐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 국가로 퍼져 나갔다. 최근에는 지구 반대편까지 확산, 미국에서도 총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다수의 국가가 바이러스 발병지인 중국 우한시로부터 자국민을 빼내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26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전세계로 우한시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대피시키는 절차에 착수했다. 당장 이달 28일 전세기 한 대가 영사관 직원 등을 태우고 중국 우한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향할 예정이다. 현재 우한시에 거주하는 미국인은 1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프랑스 정부 또한 전세기를 통해 자국민을 본국으로 대피시키기로 했다. 프랑스에서 현재 3명의 환자가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네스 뷔쟁 보건장관은 이날 “우한에 있는 프랑스 국민들은 중국 당국과의 합의에 따라 항공기 편으로 본국으로 바로 송환될 것”이라며 “송환은 이번 주 중반에 진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도 우한에 머무는 자국민을 귀국시키는 방안을 포함해 자국민을 보호하는 대책을 중국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

전 세계 ‘신종 코로나’ 확진자 수

중국	총 2806명, 사망자 81명
태국	8명
미국	5명
일본	4명
말레이시아	4명
싱가포르	4명
호주	4명
한국	4명
네덜	3명
프랑스	3명
베트남	2명
캐나다	1명

※27일 12시 기준 ※출처: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려졌다.

일본 정부는 28일 이 신종 바이러스를 법률에 따라 강제 조치가 가능한 ‘지정감염증’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감염증으로 지정되면, 환자에게 의료기관에 입원하도록 권고하거나 이를 따르지 않을 시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다. 또 환자에게 일정 기간 업무를 쉬도록 지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화권인 홍콩은 문을 걸어 잠갔다. 홍콩정부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발병지인 후베이성에서 온 사람들의 입경을 차단하기로 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27일 오전 0시부터 후베이성 거주자, 혹은 최근 2주간 이곳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입경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이 밖에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호주와 자국민 감염 사례가 없는 영국, 러시아 등이 우한에 체류 중인 자국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효선 기자 hsbun@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똑똑, 나기도 될까요?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세상인가요?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나요?
깨끗한 집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나요?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어린이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아동을 먼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주거정책이 어린이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아동 주거권 증진을 위한 '집다운 집으로' 캠페인의 제도 개선 촉구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함께 해주세요
1588-1940 www.childfund.or.kr

경기 회복 찬물 뿌린 ‘우한 폐렴’… 글로벌 금융시장 요동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인 ‘우한 폐렴’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해 수출 부진을 극복하고 올해 회복세를 기대하는 한국 경제에도 걸림돌이 될 우려가 크다.

앞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중증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우리 경제에 미쳤던 악영향을 되짚어보면 우한 폐렴도 우리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

◇‘사스·메르스’ 관광객 감소에 GDP 마이너스=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내놓은 ‘중국발 원인 불명 폐렴 현황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사스는 외국인 관광객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2003년 2분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포인트(연간 성장률 0.25%포인트) 내외 하락시킨 것으로 추정됐다. 38명의 사망자와 186명의 환자가 발생했던 메르스 사태 때인 2015년 2분기 성장률은 0.4%에 그쳤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추산에 따르면 메르스의 영향으로 2015년 한국 GDP는 0.2%포인트 감소했고, 전체 외국인 관광객은 200만 명 넘게 감소하면서 여행업은 26억 달러의 손실을 봤다. 특히 중국이 중심이 된 이번 우한 폐렴은 앞으로의 확산 여부에 따라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염병은 국가 간 교류와 무역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준다. 따라서 확산 여부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결정적”이라며 “과거와 비교해 중국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이 큰 상태

韓, 사스 사태 때 GDP 0.25%P ↓

메르스 때 관광객 200만명 감소

확진자 늘면 서비스업 크게 위축

뉴욕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日증시 2% 폭 ...무역·유통 타격

이므로 부정적 효과가 좀 더 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난다면 국내 소비와 여가 활동이 위축될 우려도 커 소매판매를 비롯해 여행·관광·유통 업종 등 서비스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이 같은 우려에 따라 정부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우한 폐렴 확산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한국은행도 애초 연휴 직후에 개최하려던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하루 앞당겨 이날 열고, 이주열 총재 주재로 우한 폐렴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글로벌 경제 ‘요동’… 관광업 등 악재 시작=세계 경제에도 신종 코로나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불안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24일 일제히 하락했다. 다우지수가 0.58%, S&P500지수가 0.90% 각각 떨어졌으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0.93% 하락으로 마감했다.

일본증시 닛케이225지수가 2% 급락하는 등 27일 아시아증시도 신종 코로나 공포 부진을 이어갔다.



정세균(왼쪽 두 번째)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을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왼쪽 첫 번째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네 번째는 박원순 서울시장.

일본 닛케이자이신문(닛케이)은 중국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이 유행했던 17년 전과 비교해 현격히 높아졌다고 그만큼 이번 사태가 글로벌 경제에 더욱 큰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추정에 따르면 2003년 사스 사태 당시 동아시아와 동

남아시아 경제성장률이 연간 0.6%포인트 하락했다. 금액상으로는 이들 지역에 180억 달러(약 21조 원) 손실이 발생했던 것으로 ADB는 추산했다.

신종 코로나는 사람의 왕래를 크게 억제, 결과적으로 전 세계 비즈니스를 위축시킬 수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실제로 운반한 승객 수와 비행

거리를 곱해 산출하는 ‘유상여객 km’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2003년에 7460억km로, 전년보다 약 5% 줄었다. 닛케이는 사스 사태 당시와 비교해 중국을 기점으로 하는 사람의 이동이 급증한 상태여서 이번 신종 코로나 영향은 더욱 심각하다고 거듭 경고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노 재팬’ 겨우 버텼는데 이젠 ‘폐렴’ 잇단 악재에 항공업계 ‘울고 싶어라’

대한항공·티웨이, 우한 노선 중단

여행수요 감소 예상... 실적 비상

현지 국내 기업들 대책 마련 고심

노 재팬(NO JAPAN·일본 불매운동)과 홍콩 시위 여파로 지난해 가시발길을 걸었던 항공업계가 중국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또 한 번 위기를 맞았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우한 폐렴 사태 발생 이후 항공사들은 대책에 고심하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21일 예정됐던 인천~우한 노선 신규 취항을 연기했다. 인천~우한 노선을 주 4회 운항하고 있던 대한항공은 중국 당국이 24일부터 우한 공항의 모든 국내·국제 항공편에 대해 운항 불가 결정을 따라, 해당 노선의 운항을 이달 31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또 직원들에게 감염 예방 수칙을 안내하면서 방역 절차를 강화하고, 기내에서 의심 증상을 호소하는 승객과 주변 승객에게는 감염 예방 마스크도 제공하고 있다.

중국 우한 폐렴으로 항공사들의 실적에 빨간불이 켜졌다. 우한 폐렴으로 전반적인 여행수요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한 폐렴 환자는 중국뿐 아니라 미국과 프랑스, 일본, 태국, 싱가포르와 호주 등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한 폐렴에 앞서 항공사들은 노 재팬 영향으로 일본행 편성 좌석 수를 25% 가까이 줄였다. 설상가상으로 작년 6월부터 일어난 홍콩 민주화 시위로 현지 치안이 불안정

해지자 홍콩 여행 수요도 감소했다.

잇따른 악재로 지난해 3분기 항공사 중 흑자를 기록한 곳은 대한항공이 유일했다. 대한항공의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한 1179억 원에 머물렀다. 작년 4분기에도 대부분의 항공업체들이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업계는 일본 노선이 회복되는 하반기에 실적 반등을 기대했지만 우한 폐렴 사태로 회복 시기는 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중국 등 국제선 운항이 일부 중단되며 여객도 30~40% 감소했다. 2015년 메르스(MERS·중증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는 여객이 10%가량 줄었다.

우한 폐렴 사태로 노심조사하고 있는 곳은 항공업계뿐만이 아니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도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우한 한난개발지구에 자동차강판 전문 가공센터를 운영 중인 포스코는 우한 폐렴 발생과 동시에 대응지침을 마련했다. SK종합화학 역시 현지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소독 강화 등 다양한 예방 대책을 준비해 시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한 폐렴으로 항공사들의 실적 내림세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다른 기업들도 물동량 감소와 글로벌 경기저하 등 직·간접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장애라는

무거운 편견을 걷어내면

능력이 보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는 행복한 일터, 편견과 차별을 버리면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취업 전 준비부터 취업 후 적응까지 체계적 지원

직업능력개발
장애인이 능력을 키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기업지원
기업의 장애인고용 준비부터 관리까지 체계적 지원

연구개발
장애인의 고용의 미래를 여는 연구개발 사업 수행

장애인고용 30년, 함께 하는 도약! 1990-2020

☎ 1588-1519 www.kead.or.kr

자산 부동산 쏠림·고령화에 힘 못쓰는 민간소비

가구 자산 부동산 비율 70%… 20~40대 5년간 164만명 줄 듯
온라인 활성화로 자영업자 타격… 올 민간소비 2.1% 증가 전망

민간소비가 힘을 못 쓰는 모습이다. 가구 자산의 부동산 쏠림과 경기 부진에 따른 소비 여력 약화에 더해 저출산·고령화로 주 소비층인 30~40대가 감소하고 있어 서다. 여기에 상품 거래방식이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으로 급변하면서 매장을 둔 자영업자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1.9%로 전년(2.8%)보다 0.9%포인트(P) 축소됐다.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도 지난해와 비슷한

2.1%에 머물 전망이다.

민간소비 둔화는 구조적으로 가구 자산 보유형태와 인구구조 변화에 기인한다. 지난해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각각 3.3%, 8.2% 감소하며 민간부문의 경제성장률(실질 GDP 기준) 기여도가 0.5%P에 머무는 등 경기 부진의 영향도 있지만, 그보다 구조적 요인이 결정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 총자산 중 부동산자산 비중은 2018년 69.9%에서 지난해 70.3%로 오르며 통계가 집계된 이래 처음

으로 70%를 넘어섰다. 연령층 기준으로 주 소비층인 20~40대 인구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164만 명 감소할 전망이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산의 부동산 쏠림에 따른 가계부채도 문제지만, 생산가능인구의 50대 쏠림도 문제”라며 “은퇴를 앞둔 계층은 노후소득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이나 연금에 투자해야 하므로, 그만큼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어 “이런 구조적 요인은 인위적인 개선이 불가능한 부분”이라며 “그나마 경기가 개선되면 단기적으로 소비 둔화가 안정될 수 있겠으나, 올해는 눈에 띌 만큼 확연히 좋아지기 어려울 것”이라

고 부연했다.

거래방식 변화도 골칫거리다. 소비 총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기초적인 소비 둔화세와 맞물려 점포를 둔 소매점, 주로 자영업자들에게 타격을 준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전체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 쇼핑 거래액 비중은 23.1%로 전년 동월(20.5%)보다 2.6%P 확대됐다.

김민정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요즘엔 의류점 등 전문소매점뿐 아니라 대형마트도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다”며 “일반 소비자들도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게 편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영업 불황은 말하는 경기 부진보다 소비패턴 변화의 영향이 커 보인다”며 “이

제 온라인이 익숙한 세대가 주 소비층이 된 만큼, 카멜레온(카멜레온과 존(Zone)의 합성어)처럼 차별을 꺾하지 않는 한 자영업 경기가 살아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도 올해 민간소비의 주요 변수다. 국내에선 27일 현재까지 4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그나마 국내 확진 환자에 의한 2·3차 감염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발생했던 2015년 2분기에는 민간소비가 급감하면서 민간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0.3%P)를 기록한 바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안철수 “비대위원장 맡겠다”

안철수(오른쪽)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손학규 현 당대표를 27일 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이날 “비대위원장을 맡겠다”는 안 전 대표의 말에 손 대표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현대경제연구 “한국, 선진국 진입 상당 기간 걸릴 듯”

복지 의존 등이 발목… ‘시장 경쟁 원리’ 구축 필요

올 국내 10대 트렌드 발표

우리나라가 중장기 유동성 함정 등에 빠져 선진국으로 진입하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7일 ‘2020년 국내 10대 트렌드’ 보고서를 통해 경제·산업·경영·사회·문화 등에서 나타날 현상들을 발표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가장 먼저 우리나라 경제의 역동성이 중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 선진국 궤도로의 완전한 진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국 경제를 중진국 수준에 머물게 하는 변수는 중장기 유동성 함정, 복지 의존 등이라고 꼽았다. 이에 따라 “민간 주체들의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한 ‘시장 경쟁 원리’ 구축과 경제 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생산적 복지’ 확대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 분야의 또 다른 트렌드로 ‘백 투 더 베이직’을 선정했다. 저성장 지속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관리, 기업의 민첩성 보장 등 경제 기본(BASIC)에 충실한 전략 및 정책이 수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 수출의 공식처럼 받아들여져 온 상관관계가 최근 약화에 향후 수출의 불확실성이 확대된다고 예상했다. 민간 부문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에서 늘어나는 부채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산업·경영 부문에서는 사드 사태 이후 경색됐던 한·중 관광 교류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며, 국내로 유입되는 중국인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자동차로 대표되는 충전시대 도래와 관련해서는 중·대형 고용량 2차전지 시장 선점을 위한 업체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은퇴 이후에도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액티브 시니어’들의 영향력이 확대된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개인의 관심사와 취향을 공유하는 유료 오프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아이돌 문화로만 여겨졌던 팬덤 현상이 다양한 분야로 적용되면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외에도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경제협력(Cooperation) △남북연결(Connect) △남북 간 대화와 타협(Compromise) △국민적 공감대(Consensus)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이후 합의된 물량 배분 비율에 따라 입찰 구간별 낙찰예정자, 둘러리, 투찰가격 등을 정했다. 이들 업체는 합의 내용 준수를 감시하기 위해 각 사 직원을 상호 교차 파견하거나 입찰 종료 전 입찰내역을 서로 교환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합의한 대로 입찰에 나선 결과 8개 사업자는 19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가 낙찰을 받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이들이 얻은 관련 매출은 총 9318억 원이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제조업 ‘흐림’… 반도체 ‘맑음’

산업연구원 BSI 전망… 제조업 매출 86, 반도체 89

올해 1분기 제조업 경기가 전 분기보다 더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연간 전망 역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다만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경기는 회복할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연구원은 국내 1135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1분기 상황과 매출 전망이 각각 86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전 분기보다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것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각각 의미한다.

상황과 매출 전망 BSI 모두 100을 크게 밑돈 가운데 전 분기 대비 각각 1포인트(P), 2P 하락했다.

내수 전망치(88→86)와 수출(96→94) 전망치도 전 분기 대비 동반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설비투자(94→100)와 고용(94→98)은 전 분기보다 상승했다.

1분기 매출 전망 BSI는 신산업(105)에서 100을 웃도는 가운데 기계 부문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과 기업은

약보합세를 보였다.

세부 업종별로는 바이오·헬스(107)에서 100을 상회한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의 반도체(82→89)와 가전(78→83), 기계부문의 조선(87→89)과 일반기계(83→88), 소재부문의 화학(88→93) 등에서 전 분기 전망치를 상회했다.

그러나 디스플레이(82→75), 무선통신기기(102→80), 정유(96→82), 철강(93→83), 섬유(86→80) 등은 하락세를 기록했다.

2020년 연간 전망은 상황 90, 매출 94로 모두 100에 못 미쳤다. 부문별로는 설비투자(101)만 유일하게 기준선을 넘었다.

올 한 해 업종별로는 바이오·헬스(106)와 2차전지(115) 등 신산업과 반도체(103) 등에서 100을 상회해 실적 개선이 예상됐다. 반면 정유(100)를 제외한 대다수 업종은 100을 밑돌았다. 특히 디스플레이(79), 자동차(85), 철강(87), 섬유(86) 등에서 실적 부진 우려가 컸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산적인 민생법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까

與 우선 처리 민생법 130건 꼽아
선거구 획정에 밀려 통과 난망

정지권이 4·15 총선 체제로 전환하면서 선거구 획정을 위해 2월 임시국회가 열릴 전망이다. 산적인 민생법안 등은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법이 2월 임시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고, 4·15 총선을 치르려면 선거법 개정을 통한 선거구 획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가 문을 열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 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둘러싼 앙금이 남아 있는 만큼 최소한의 의사일정만을 소화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개혁 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각 당이 총선 준비로 분주하지만, 민생법안 처리를 마냥 미룰 수 없다”며 2월 국회 소집을 제안한 상태다.

민주당은 대략 130건의 민생법안을 우

선 처리 대상으로 꼽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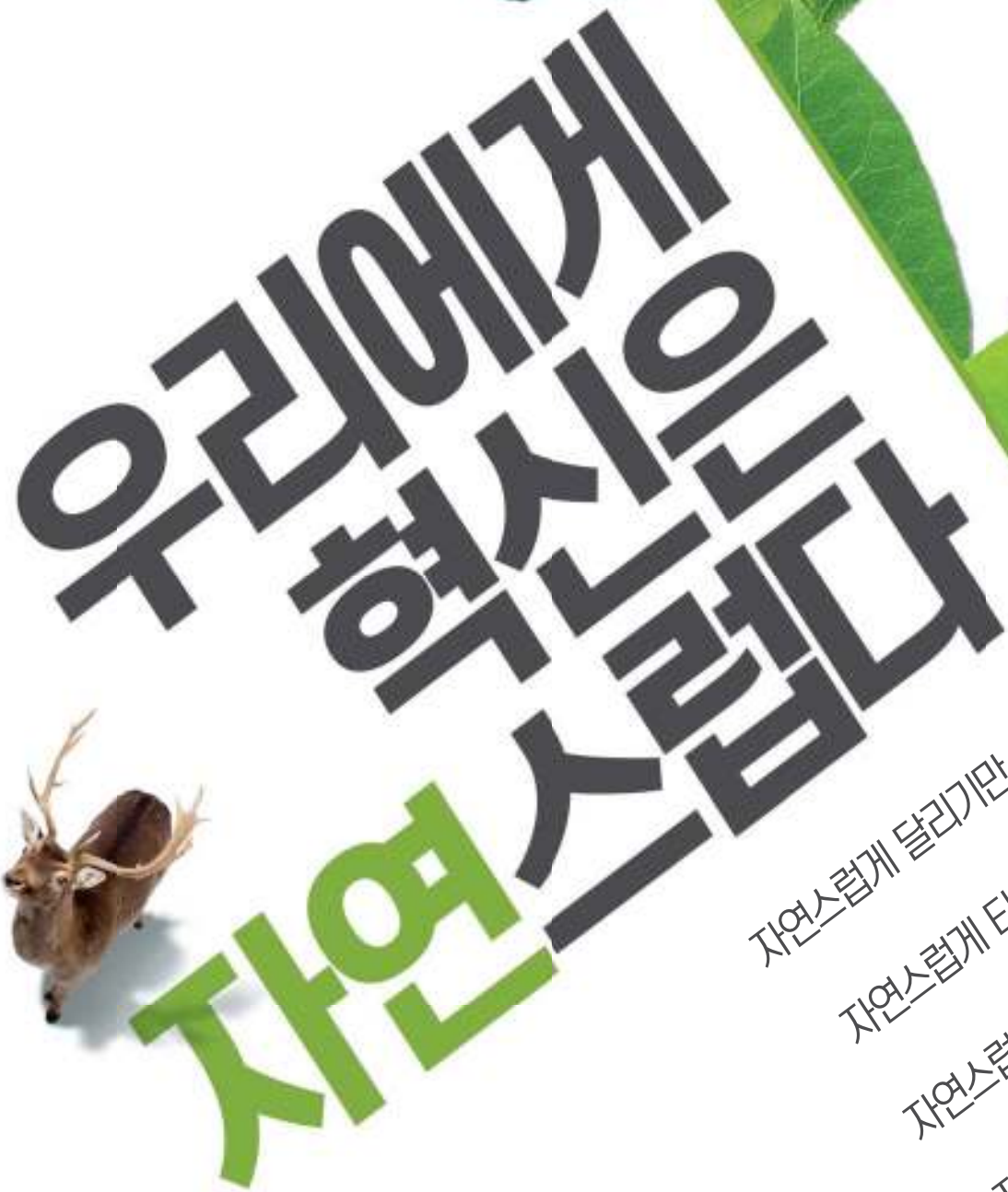
미세먼지법, 지방자치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지역발전특별법, 과거사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 57건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노사관계조정법 등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개정이 필요한 법률, 각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 70여 건 등이다.

또한 검찰개혁에 이은 경찰개혁 법안 처리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민생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처리할 법안들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22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정권이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별의별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2월 국회에서 이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2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더라도 의사일정 합의에 난상이 예상되면서 선거구 획정도 표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선거법은 총선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일환 기자 whan@



우리에게 혁신의 자연스럽다

자연스럽게 달리만 해도
자연스럽게 타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쓰기만 해도
자연과 함께하는 기술
이게 바로, SK이노베이션의
자연스러운 혁신

SK 이노베이션

<6%대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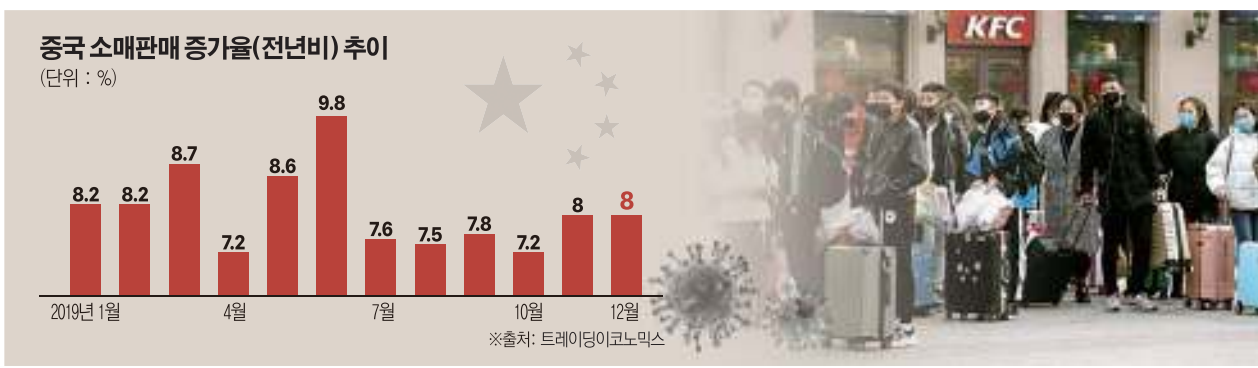
‘신종 코로나’ 앓는 中… ‘바오류’ 무너지나

소비둔화에 폐렴 강타 ‘설상가상’
최대 명절 춘제에도 손님 발길 뜰
“6.7% 피해·성장률 1%P ↓” 우려

중국 이미 둔화하는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비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신종 코로나)’가 소비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최근 수 주간 신종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가뜰이나 매우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중국 경제의 ‘바오류(保六·6%대 성장률 유지)’가 붕괴할 위험에 놓였다고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진단했다.

많은 주민이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설날) 연휴 기간에 신종 코로나 공포로 여행은 물론 외식과 쇼핑, 영화 관람 등을 자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중국 일부 지방당국은 극장과 박물관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폐쇄할 것을 지시했다. 바이러스 진원지인 우한을 포함해 후베이성 13개 도시는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신종 코로나가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활기에 찼던 소비 부문이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나이키와 아이맥스 등 미국 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베이징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WSJ와의 인터뷰에서 “난징으로 여행 가려던 계획을 취소했다”며 “우리는 어디도 갈 곳이 없다. 심지어 영화를 보러 나가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성장률이 이미 신종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강한 둔화압박을 받고 있었다며 이번 공중보건 위기로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6.1%로 2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프랑스 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 “만일 이번 전염 사태가 3월까지 안정되지 않으면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6%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시에테제네랄은 신종 코로나 사태 전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을 6.1%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바오류 유지는 중국에 있어 심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는 올해 중국 경제규모를 2010년보다 두 배로 한다는 중요한 목표가 있는데 바오류가 붕괴하면 이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앞서 2002~03년 일어났던 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SARS·사스) 사태 당시에도 중국 소비 부문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문제는 17년 전보다 현재 소비가 중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독일 코메르츠뱅크의 저우하오 이코노미스트는 “오늘날 중국 경제에서 소비 비중은 절반이 훨씬 넘는 다”고 말했다.

독립 이코노미스트이자 과거 중국 지방정부에 자문을 제공했던 천궁은 “신종 코로나 사태에 따른 비용은 400억 위안(약 6조7400억 원) 이상이 될 수 있다”며 “올해 중국 성장률이 약 1%포인트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생산성 향상” vs “경기침체 직결” 전세계 ‘주4일 근무제’ 공방

세계 곳곳에서 ‘주4일 근무제’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고 26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지아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이 혁신적인 근무제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은 연초 돌았던 핀란드발 ‘가짜 뉴스’에서도 엿볼 수 있다.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가 자국에서 주4일 근무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하지만 사실 핀란드 총리는 취임 전 “노동 시간 단축의 비전을 갖고 있다”고

말했을 뿐이었다. 이는 노동 개혁을 선도하는 유럽에서도 주4일 근무제 실현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닛케이는 해석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MS) 일본 지사는 지난해 8월 약 2300명의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급여 수준을 유지한 채 주4일 근무제를 시범 도입하는 파격적인 실험에 나섰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직원 1인당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0% 늘었다. 일본 MS는 이를 ‘근무일

수만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직원들의 급여 수준, 대우, 책임 범위, 목표 등에는 변동이 없었다. 대신 불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업무를 구분하고, 30분 이내에 끝나는 회의의 비율이 전체의 50% 가까이 급증하는 등 업무 효율성이 대폭 개선됐다.

뉴질랜드의 한 자산운용사 역시 지난 2018년 주4일 근무제를 시행한 결과 생산성이 20% 오른 것을 확인했다. 이 회사 역시 급여 수준을 바꾸지 않았다. 대신 회의 단축, 수동 작업의 자동화로 생산성 향상을 꾀했다. 현재 이 회사는 주4일 근무제가 정착됐다.

다만 닛케이는 현재까지 ‘주4일 근무제’를 실현하기에는 장애물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했다. 일본에서는 정사원이든 시간제 근로자든 일한 시간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일본 싱크탱크인 닛세이치조연구소(NLI)의 타로 사이토 연구본부장은 “근로 시간의 단축은 가계 소득이 줄어 경제 침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1990년대 정착한 주5일 근무제가 일본의 경기침체를 초래했다는 분석도 있다. 일본 정책연구개발원대학의 하야시 후미오(林文夫) 교수와 에드워드 프레스콧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 교수가 발표한 2002년 논문은 “1인당 평균 노동 시간의 감소와 생산성 저하로 일본이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졌다”고 밝혔다.

변효선 기자 hsbun@

헤지펀드 엑소더스 50.2兆 자금 이탈

기관 “수익률 기대이하” 거래 줄여

전 세계 투자자들의 헤지펀드에 대한 인기가 싸늘하게 식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헤지펀드 평균 투자수익률이 10.4%로 10년 만에 최고 성적을 올렸지만 투자자들이 무려 430억 달러(약 50조 2000억 원) 자금을 인출했다고 26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금융정보업체 HFR 집계를 인용해 보도했다.

인출 규모는 2018년의 383억 달러에서 증가한 것이다. 또 HFR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헤지펀드에서 빠져나간 자금은 총 1420억 달러에 달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헤지펀드들이 다른 금융상품에 못 미치는 성적을 수년간 내면서 기관투자자들이 헤지펀드 상품에 대한 익스포저를 줄이고 있는 것이 인출 확대 주원인이라고 FT는 진단했다.

예를 들어 헤지펀드는 지난해 10년 만에 가장 좋은 성적을 올렸지만 뉴욕증시 벤치마크인 S&P500지수의 상승률 31.5%는 훨씬 밑돌았다.

헤지펀드 수익률은 50대 50 비율의 글로벌 주식채권펀드 수익률 16.6%도 따라잡지 못했다고 FT는 꼬집었다.

금융정보업체 이베스트먼트의 피터 로렐리 글로벌 리서치 대표는 “헤지펀드들이 2018년 부진한 성적을 올린 것이 지난해 투자자들의 헤지펀드 투자 축소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20억 달러 규모의 퀀트에지캐피털 글로벌 펀드는 지난달 초까지 연간 투자수익률이 63.6%에 달해 2019년 최고의 헤지펀드 중 하나로 꼽혔다. 그러나 이 펀드는 2018년에는 마이너스(-) 29.2% 수익률로 HSBC홀딩스가 집계한 400여 개 헤지펀드 중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헤지펀드 성격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동하면서 많은 투자자가 투자를 꺼리게 됐다고 FT는 꼬집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www.douzone.com

인공지능 ERP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다!

더존 iCUBE가 더욱 스마트해졌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기계학습 방법론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

기업의 업무는 이제 국내 유일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에 맡기십시오.

회사 밖에서 급한 업무가
생기면 어떡하지?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도
실시간 업무 진행이 가능한
스마트워크

회계처리 쉬운 방법 없을까?

거래내역 자동수집, 자동분계,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데이터 오류까지 자동 검증

믿을 만한 거래처인가?

거래처 신용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우리 회사 경영 상황을
분석할 수 있을까?

ERP에 축적된 데이터를
기업에서 필요한 형태로
수정할 수 있는 분석을 제공

기업용 ERP

- 회계관리 인사·급여관리 영업관리
- 무역관리 구매·재재관리 생산관리
- 와주관리 서비스관리 경영정보관리
- 공사현장관리
- 더존 iCUBE
더존 iCUBE
Cloud Edition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용 ERP

- 예산관리 자산관리 후원자관리
- 회계관리 인사·급여관리 경영정보관리
- 영업관리 구매·재재관리 생산관리
- 와주관리
- 더존 iCUBE G20
더존 iCUBE G20
Cloud Edition

윤종규표 금융·통신 융합 ‘리브엠’의 빛과 그림자

책임자 부행장 승진 등 전폭 지원
계층별 요금제·결합상품 출시
KB금융, 혁신 먹거리로 육성

통신업계 “가입자 빼앗기” 불안

금융권 첫 알뜰폰 리브엠은 금융과 통신을 융합한 윤종규 KB금융 회장의 ‘혁신금융’ 야심작이다. 평소 미래 경쟁 업체를 구글·알리바바 같은 IT 업체라고 지목할 만큼 디지털·IT 역량을 강조해온 그에게 리브엠은 전통적인 은행업에서 벗어나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필승카드다.

윤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KB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 나갈 신수익원 확보에 앞장 서겠다”며 “리브엠을 통해 서로 다른 업종과의 협업 성공 사례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브엠은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1차 혁신금융 서비스(금융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다. KB금융이 LG유플러스와 협업해 알뜰폰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으로 금융업계 최초의 통신서비스다.

사업 초창기 윤 회장의 리브엠 사랑은 각별했다. 리브엠이 금융권에 불고 있는 혁신 바람을 선도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 회장은 지난해 직원들과 소통하는 자리에서 미래 경쟁자를 묻는 질문에 “미래에는 알리바바, 구글과 같은 IT기업이

KB의 경쟁자일 수도 있다”며 “현재의 환경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더 디지털·IT 역량을 키워가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IT에 대한 윤 회장의 각별한 관심은 그의 행보에서 볼 수 있다. 그는 얼마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에 금융권 CEO로는 유일하게 참석했다. CES 박람회에서도 윤 회장은 정보통신 분야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고 글로벌 ICT(정보통신기술) 기업과의 협업 기

회를 모색했다. 또 이달 국민은행은 인사에서 리브엠 담당 전무를 부행장으로 승진시키면서 사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리브엠은 올 상반기 중 청소년 요금제 등 계층별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고객 맞춤 서비스를 강화한다. 하반기에는 통신상품과 금융 혜택을 결합한 상품을 출시하는 등 혁신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리스크도 존재한다. 가입자를 빼앗기고 있는 알뜰폰 업체들에게 리브엠은 위협이다. 때문에 알뜰폰 업체들 사이에서는 리브엠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알뜰폰 관계자는 “출시 3개월이 지났지만, 요금제 말고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막강한 자금력과 기존 고객들을 앞세워 가입자를 쉽게 유치하기 때문에 오히려 서비스의 질은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년 안에 100만 가입자를 목표로 하고 있는 KB금융의 목표에 대해서도 회의적

이다. 알뜰폰의 생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목표 가입자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며 “시작부터 온라인 채널만 사용해 가입을 유도해 알뜰폰 특성상 (노인계층, 어린이) 접근이 쉽지 않아 가입자 증가 동력이 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기존 알뜰폰 업체들은 리브엠이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가입자만 빼앗아 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협력사인 LG유플러스 내부에서도 리브엠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통상 망 제공 사업자인 통신사와 이 통신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회사와의 전통적인 관계와는 다르다는 불멘소리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KB가 망 제공 사업자인 LG유플러스를 동반자로 보지 않고, 망을 깔아주는 하청 업체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KB가 금융업자라는 특수성 때문에 기존 알뜰폰 사업자와는 다른 태도로 접근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김범근 기자 nov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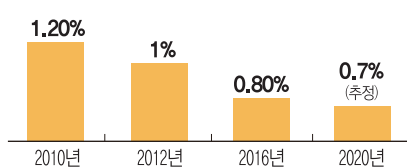
국세 납부 카드수수료 폐지 ‘가시밭길’

업계 수익 보전·형평성 논란 등
법 개정안 국회 통과 미지수

신용카드 국세 납부 카드수수료 폐지가 추진된다. 2018년 카드사는 연간 10조 원이 넘는 국세와 지방세를 국세청에 대납했지만, 수수료는 최저 수준인 0.7%(약 800억 원)를 걷는 데 그쳤다. 카드업계는 국세 납부 시스템을 운영할 최저 수준의 수수료율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어서 앞으로 국회와 정부, 카드업계의 의견 조율이 필요할 전망이다.

28일 국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더

납부대행 수수료율 ※출처: 국회



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3일 신용카드 국세 납부 카드수수료를 없애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령에는 납세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면 국세납부 대행기관인 카드사에 1% 이내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에 서 의원은 개정안에서 일정 수입액 미만의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카드사가 신용카드 납부 세액을 일정 기간 운영하도록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해당 법안의 실제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신용카드 국세 납부 카드수수료 폐지안을 담은 법안은 2016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의원 시절 한 차례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 법안은 4년째 해당 상임위원 기획재정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당시 국회는 검토 보고서에서 반대 의견으로 “납세편의와 결제 기간 이익은 납세자가 누리고, 국가가 수수료를 부담하면 현금납부와 형평성을 해칠 가능성, 지방세와 달리 국세는 ‘국고금 관리

법’ 때문에 신용공여 방식 채택이 어렵다”고 명시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 간 차별 금지와 가맹점의 수수료 고객 전가를 금지하고 있어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 채로 논의 단계에 머물렀다.

카드업계는 법적 논의보다 수익 때문이라도 수수료 폐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2010년 1.2%였던 수수료는 2012년 1%로 인하된 뒤, 2016년 0.8%까지 떨어졌다. 2020년 현재 수수료율은 0.7%대로 알려졌다. 이는 현행 영세가 매점 카드수수료율(0.8%)과 비슷한 수준으로 카드사는 사실상 수익을 취할 수 없는 수수료율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를 없앤다면 보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단순히 수수료를 없앤다면 일반 가맹점 같은 경우라면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P2P 시행령 입법예고

대출한도 70억 이내로 제한

금융위원회는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업)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허가 조건은 연계대출채권 잔액 300억 원 미만 회사는 자기자본 등록 요건 5억 원을 기준으로 한다. 300억~1000억 원 미만은 10억 원, 1000억 원 이상은 30억 원이다. 이들은 등록 후 최소 자기자본의 7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대출 채권 잔액의 7%와 70억 원 이내로 제한하며 투자자 유형과 투자 상품별로 투자한도를 정하는 등 투자자 보호 규정을 강화했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는 5000만원(동일 차입자는 500만 원 이내)으로 제한한다. 부동산 관련 상품은 30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정용욱 기자 drag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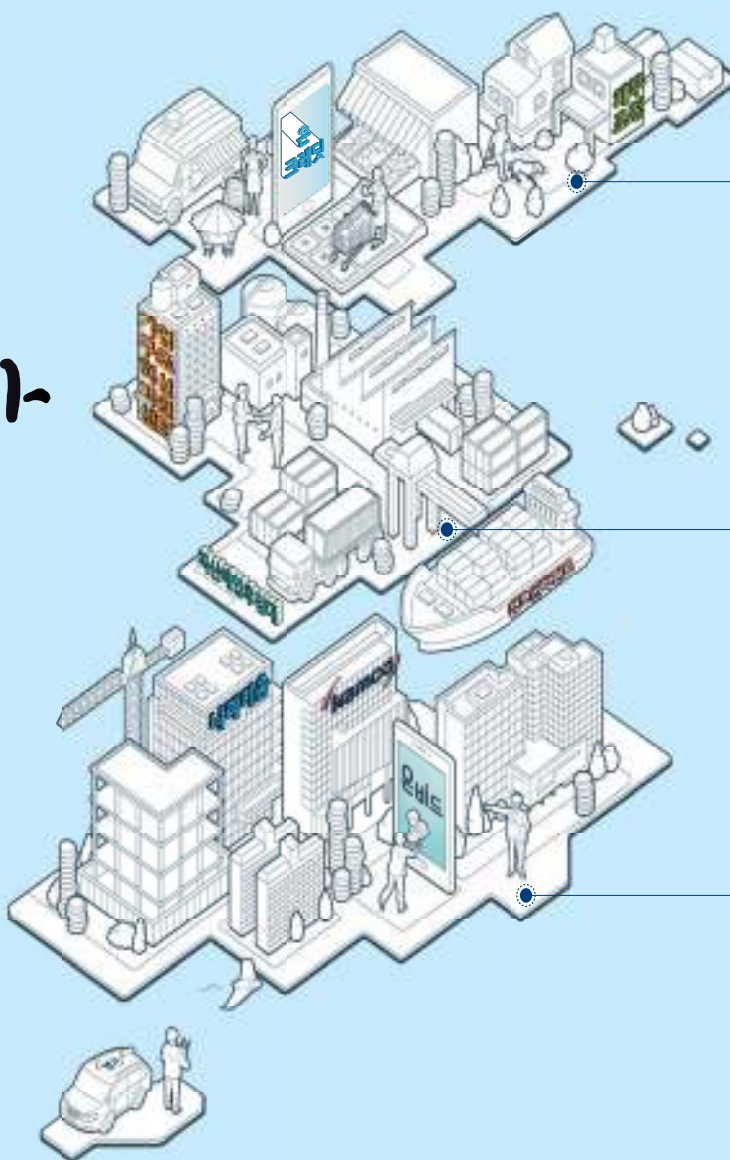
가계·기업·공공자산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입니다

금융부채로 어려운 가계에는 **희망**을
재기를 꿈꾸는 중소기업에게는 **기회**를
공공자산의 잠재된 **가치**를
캠코가 만들어갑니다.

캠코는 가계·기업·공공자산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입니다.

대표전화 : 1588-3570



가 계

금융취약계층 재기 지원

개인연체자 채무부담 경감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일원화

기 업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운영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DIP금융(회생기업 자금지원)
캠코선박펀드 운영

공 공

저활용 국·공유재산 가치창출

유류 저활용 국·공유재산 관리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온비드(OnBid) 운영

두산重·현대로템 살리기…창원시가 나섰다

정부에 거래기업 세금 경감 등 지원방안 요청
사업장·협력사 방문 애로사항 청취 소통 강화

수년간 어둠의 터널에 갇혀있는 창원지역 대표 기업들의 경영이 올해도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창원시가 직접 발 벗고 나섰다. 창원시는 생존을 위협받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설 연휴 직후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본격화해 지원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27일 창원시에 따르면 가장 먼저 '기업 살리기 프로젝트'의 대상이 된 곳은 두산중공업과 현대로템이다.

창원시청 스마트혁신산업국 전략산업과 관계자는 "이 두 회사를 시작으로 현황을 파악한 후, 정부에 지원 요청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라며 "설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산중공업은 전담자를 둘 정도로 창원시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기업 중 하나로 실시간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 창원시는 지난 몇 년간 지속된 탈원전 정책 탓에 두산중공업의 총 매출 중 20%를 차지하는 원전사업 실적이 '급전직하'하면서 조직과

지 크게 축소됐던 상황을 지켜봐 왔다.

이에 창원시는 두산중공업의 새로운 미래먹거리를 찾기로 했으며, 그중 하나가 '가스터빈 사업'이다.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가스터빈 국산화를 성공시켰으며, 기술력을 인정받아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발전용 가스터빈은 전량 해외제품에 의존해왔다. 국내 발전소에서 운영되는 해외기업의 가스터빈은 총 149기로 구매 비용만 약 8조1000억 원에 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도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두산중공업이 힘들어진 만큼, 신성장동력인 될 수 있는 가스터빈 사업을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 요구할 내용은 △국산 가스터빈 공급 계획 반영 △국산 가스터빈 적용 발전사와 관련 기업 대상 세금 경감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이다.

아울러 창원시는 설 연휴 직후 현대로템 현장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



15일 현대로템 창원공장에서 개최된 비상경영 선포식에서 직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로템

획이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 15일 창원공장에서 임원, 팀장 및 직원 등 300여 명의 임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현대로템의 경영쇄신을 위한 비상경영 선포식에도 참여했다. 현대로템은 2017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경영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플랜트 사업부 구조조정 등 조직 슬림화가 시작됐다.

창원시는 두산중공업, 현대로템 대책 마련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지면, 이후 효성사업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창원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수시로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여기에는 두산중공업이 흔들리면서 덩달아 타격을 입은 280여 개의 협력업체도 포함돼 있다.

한편 창원상공회의소는 최근 창원지역

119개 표본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 1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조사'를 한 결과, 기업경기전망지수(BSI)가 기준치 '100'에 못 미치는 '64.7'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11분기 연속 기준치를 밑돈 것으로 BSI가 100 이상이면 이번 분기보다 다음 분기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업체가 더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하유미 기자 jscs508@



현대차 WRC 개막전부터 선두 현대자동차는 23~26일(현지시간) 모나코에서 열린 2020 WRC 시즌 첫 대회 '몬테카를로' 랠리에서 드라이버 부문과 제조사 부문에서 선두를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 포뮬러원(F1) 대회와 함께 글로벌 자동차 경주대회의 쌍벽을 이루는 WRC는 이번 개막전을 시작으로 6개 대륙 13개국에서 11개월 동안 경기를 치른다.

사진제공 현대차

한화솔루션 '전장 소재' 파일럿 공장 3월 완공

성균관대와 기능성 소재 연구
대규모 양산 전 샘플 생산
"항공·방산으로 사업 확장"

한화솔루션이 전장부품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낸다. 고기능성 복합소재 연구를 위한 파일럿(PILOT) 설비 투자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신규소재 연구·개발(R&D)에 나설 예정이다.

27일 한화솔루션에 따르면 이 회사 첨단소재 부문은 약 80억 원을 투입된 전장부품 공정 개발을 위한 파일럿 설비 투자를 3월 끝내고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파일럿 설비는 대규모 양산 설비를 갖추기 이전에 새로운 제품에 대한 샘플을 생산하고 초기 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이 파일럿 설비는 한화솔루션이 지난해 8월 한화첨단소재 당시 성균관대와 공동

으로 고기능성 소재 R&D를 진행하기로 맺은 업무협약(MOU)의 연장 선상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한화솔루션과 성균관대는 자동차용 경량복합소재를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인 항공기용 고기능성 복합소재에 대한 R&D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파일럿 설비가 가동되면 본격적으로 신규 전장 부품 소재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한화솔루션은 현재 전장부품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자동차 경량화 주력 소재인 GMT(강화열가소성플라스틱)와 LWRT(저중량강화열가소성플라스틱)는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70%에 달한다.

특히 최근 연비 규제와 친환경 차의 부상에 따라 완성차 업체에 경량화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관련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한화솔루션은 이번 R&D를 통해 향후 항공 및 방산용 고기능성 복합소재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구영 한화솔루션 대표는 이날 초 임시주

주총회에서 "계열사와 협력을 통해 항공, 방산 분야로 고부가 신소재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관련한 고기능성 소재 시장도 적극 공략할 방침이다.

항공기의 경량화 추세가 더욱 자리 잡는 동시에, 4차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개인용 비행체(PAV) 상용화가 눈앞에 있는 만큼 항공용 고기능성 소재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방산 분야 역시 지속해서 신소재가 필요한 분야다.

회사 관계자는 "파일럿 설비에서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이곳에서 통과가 되면 본격적인 설비 투자도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파일럿 설비인 만큼 아직 초기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달 초 한화케미칼과 한화큐셀엔드첨단소재가 합병해 출범한 한화솔루션은 중기적으로 차별화 기술 개발과 신사업 확대를 통해 매출 규모를 2025년까지 약 18조 원, 영업이익은 1조6000억 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김유진 기자 eugene@

일본차 '5월 부산모터쇼'서 반등 엿보나

하반기 국산차와 대결 피해
'8·15' 이전 대대적 마케팅
토요타 'GR 수프라'로 포문

지난해 불매운동 영향으로 극심한 부진에 빠진 일본차가 본격적인 재기에 나선다. 5월 부산국제모터쇼를 전환점으로 삼고 하반기에 대대적인 마케팅을 통해 판매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27일 수입차 업체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일본차 판매는 전년 대비 10% 넘게 증가했지만, 불매운동이 본격화된 하반기 판매는 무려 45%나 감소했다.

일본차의 작년 총 판매는 전년 대비 19.1% 줄었다. 일본차의 부진 탓에 전체 수입차 시장도 전년 대비 6.1% 감소한 24만4780대에 그쳤다.

일본차는 올해 들어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다. 상반기에 신차를 내놓거나 선풍적인 마케팅에 나서는 한편, 하반기에 프로모션과 마케팅을 앞세워 본격적인 판매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직 조심스럽지만 더는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도 서려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 일본 브랜드들이 막바지 공격적인 할인에 나서면서 12월 실적은 전년 12월과 비교해 대부분 증가세로 전환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올해 일본차 마케팅의 포문은 토요타가 열었다. 일본 도요타의 한국판매법인인 토요타 코리아는 지난 21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에서 언론대상 신차발표회를 열고 '토요타 GR 수프라'를 출시했다. 브랜드를 대표하는 스포츠카로 인기를 끈 모델이다. 수프라를 시작으로 상반기에 △캠리 스포츠 에디션 XSE △프리우스 사륜구동(4WD) △프리우스 C 크로스오버 등 4개의 신차를 선보이며 분위기 반전에 나선다.

토요타를 제외하면 다른 일본 브랜드는 아직 구체적인 신차 계획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다만 올 상반기, 특히 부산모터쇼를 변곡점으로 삼는 분위기다.

상대적으로 일본 문화의 유입이 많은 부산에서 열리는 행사인 만큼, 이를 전후로 선풍적인 마케팅을 앞세워 시장 회복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2018년 부산모터쇼에는 혼다를 제외하고 토요타와 렉서스, 닛산과 인피니티 등 4개 브랜드가 참가한 바 있다.

상반기에 마케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에는 하반기에 특히 집중되는 국산차의 대대적인 마케팅과 정면대결을 피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나아가 광복절로 인해 상대적으로 국민감정이 민감한 8월을 조용히 넘어가겠다는 전략도 숨어있다.

LG전자, 나이지리아에 세 번째 무료 세탁방

LG전자는 25일(현지시간) 나이지리아 카노 주에 있는 LG 브랜드샵의 일부 공간에 무료 세탁방 '라이프스 굿 워드 LG 워시(Life's Good with LG Wash)'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LG전자는 세탁방에 최신 세탁기, 건조기 외에 다리미, 섬유유연제, 세탁세제 등 빨래에 필요한 용품을 비치했다. 여름에는 더위를 식히며 빨래할 수 있도록 에어컨도 설치했다. 갑작스런 정전에도 세탁방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무정전 전력공급기를 마련했다.

LG전자가 나이지리아에 무료 세탁방을 설치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7년 오그바 마을에 처음 설치한 이후 2018년에는 음보음바 마을에 열었다. 현재까지 2만5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무료 세탁방을 이용했고 세탁한 옷만 19만 벌이 넘는다고 LG전자는 설명했다.



LG전자가 25일(현지시간) 나이지리아에서 세 번째로 무료 세탁방 '라이프스 굿 워드 LG 워시' 개소식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이번 세탁방을 여는 데는 '임원사회공헌 기금'이 사용됐다.

LG전자는 2004년부터 매년 임원 급여의 일정 비율을 임원사회공헌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이 기금은 국내외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 지역사회 개선 등에 사용되고 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CJ대한통운, 중국계약물류 8위

CJ대한통운은 중국의 물류 연구 기관인 운연연구원에서 발표한 '2019 중국계약물류 50대 기업' 랭킹 순위에서 종합 8위에 올랐다고 27일 밝혔다.

이 순위는 CJ로킨과 CJ스피덱스, CJ대한통운 중국법인의 계약 물류 실적을 종합 평가한 결과다. 계약 물류란 기업이 물류 관련 분야 업무를 특정 물류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CJ로킨 6384억 원(38억 위안)과 CJ스피덱스 3528억 원(21억 위안), CJ대한통운 중국법인 1680억 원(10억 위안)의 계약 물류 매출을 합산하면 약 1조1760억 원(70억 위안)에 달한다.

특히 CJ로킨은 최근 물류 관련 인증을 받으며 대내외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중국 냉동냉장물류 상위 100대 기업' 2위에 선정되는 등 6년 연속 100대 기업에 올랐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금융그룹

“ 요즘 해외주식 지류가 인기라는데, 해외주식 투자는 어디서 해야 하나? ”



글로벌 투자 · 자산관리의 名家

하나금융투자에서 시작하자!



온라인 5개국, 오프라인 23개국 * 기준일 2019.7.5
28개국 거래 가능 서비스



해외주식 전문가의
24시간 상담 서비스 02)3771-3771

※투자 전 설명 청취 ※예금자보호법 상 보호상품 아님 ※원금손실 가능 ※해외주식은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
※해외주식은 현지 사정에 따라 결제일이 지연될 수 있음 ※해외주식 매매수수료는 온라인기준 미국 0.25%(최소수수료 USD 5), 중국 0.3%(최소수수료 없음), 오프라인기준 미국 0.5%(최소수수료 USD 20), 중국 0.5%(최소수수료 CNH 50), 국가별, 주문별 상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19-02690호(2019.07.05~2020.07.04) CC브랜드190705-64 m.hanaw.com | 1588-3111

하나금융투자

“주택거래 절벽에 가전도 안 바뀌”...新가전으로 틈새 공략

국내 세탁기·에어컨 타격 예상
삼성, 신발관리기·맥주 냉장고
다양한 ‘취향존중’ 제품 내놓고
LG, 초프리미엄 시그니처 강화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시장 압박정책으로 주택거래량이 위축되면서 가전 교체 수요 역시 덩달아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양대 가전회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프리미엄 제품 확대와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신(新)가전으로 위기를 돌파할 계획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 매매거래량이 빠르게 줄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올해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년 대비 0.7% 감소한 80만여 건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고가 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결과다.

국내 가전업계는 주택거래량 감소로 가전 수요가 줄어든 것을 염려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주택거래를 동반하는 이사나 결

혼 수요가 줄면 가전 교체 수요도 동반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전통적인 가전 판매가 제한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거래량 감소는 가전 판매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생활가전의 교체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교체주기도 조금씩 짧아지고 있다”며 “신가전 등 다른 가전 품목의 판매가 늘면서 가전시장 자체가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수요위축이 일정부분 예상되는 만큼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가전 시장 확대를 위해 가전의 고사양화,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제품을 적극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먼저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제품을 늘려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비스포크 냉장고, 의류청정기, 공기청정기처럼 개념을 바꾼 라이프 스타일 제품을 확대한다.

올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 ‘CES’에서 선보인 큐브 냉장고와 신발관리기 등 새로운 가전제품으로 가전 시장 규모를 키워나간

다. 삼성전자는 CES에서 ‘와인큐브’ ‘비어큐브’ ‘뷰티큐브’ 등 큐브 형태의 소형 냉장고를 비롯해 의류청정기 ‘에어드레서’의 원리를 적용한 ‘신발관리기’까지 소비자들의 다양한 취향과 요구를 충족시켜 줄 제품들을 전시했다.

LG전자도 프리미엄 제품 확대와 신가전에 집중한다. LG전자는 초프리미엄 ‘시그니처(LG SIGNATURE)’와 초프리미엄 빌트인 가전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프리미엄 프라이빗 가전 ‘오브제’를 두고 프리미엄 가전을 강화하고 있다.

공기청정기, 의류관리기, 건조기 등 신가전 제품 공략도 강화한다. 올해 CES에서 선보인 식물재배기, 물걸레 로봇청소기와 같은 새로운 카테고리의 가전제품도 지속 발굴해 가전 시장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가전 업계 관계자는 “기존 제품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가치와 제품 카테고리를 창출해 가전시장 판을 키우는 한편, 더 세심하게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소비자들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0’에서 공개된 삼성전자의 소형 냉장고 ‘큐브’(위)와 LG전자 ‘식물재배기’.

사진제공 각 사

수입차 큰손은 30대, 지난해 33% 차지

20·30대 BMW, 40~70대 벤츠...연령별 선호 브랜드 뚜렷

작년 수입차 시장의 최대 고객은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층은 BMW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중장년층은 메르세데스-벤츠를 제일 선호했다.

27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의 ‘2019 브랜드별 연령 통계’에 따르면 작년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차(국토교통부 신규 등록 기준) 24만4780대 가운데 개인이 구매한 차량은 총 15만3677대로 집계됐다.

연령대별 구매량은 30대가 5만645대로 전체의 33.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40대 31.7%(4만8709대), 50대가 19.6%(3만161대)로 뒤를 이었다. 60대는 8.0%(1만2345대), 20대 5.8%(8970대), 70대 이상이 1.8%(2827대)였다.

세대별로 살펴 보면, 20·30대에서는 BMW가 최다 판매 브랜드로 꼽혔고, 40~70대에서는 벤츠가 독보적 인기를 끌었다.

20대에서는 BMW가 2340대(26.1%) 판매돼 2위 벤츠 2129대

(23.7%)를 제치고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3위에도 BMW 계열의 소형차 브랜드인 미니(MINI)가 1019대(11.4%)로 이름을 올렸다. 30대 역시 BMW가 1만2299대(24.3%)로 가장 많이 팔렸다. 40대에서는 벤츠가 1만2257대(25.2%)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고, BMW는 8407대(17.3%)로 2위였다.

50대와 60대는 벤츠 선호도가 유난히 두드러졌다. 50대에서는 전체 판매량 3만161대 중 8762대(29.1%)가 벤츠였다. 두 번째로 많이 팔린 BMW(3697대·12.3%)는 벤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60대가 구매한 수입차 역시 전체 1만2345대 중 4248대(34.4%)가 벤츠였다. 다음으로 많이 팔린 BMW(1285대·10.4%)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70대 이상에서도 벤츠가 전체 2827대 중 1040대(36.8%)로 가장 많이 팔렸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SK이노 ‘지속가능 글로벌 배터리 산업’ 참여

세계 배터리 동맹의 10대 원칙
‘온실가스 감축’ 등 추구하기로

SK이노베이션이 세계 배터리 동맹(GBA)의 ‘지속가능한 배터리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10대 원칙’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GBA는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배터리 산업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경제적 가치를 키우고, 동시에 환경 및 사회적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 결성된 글로벌 연합체다.

이 연합체에는 학계, 원소재 기업, 배터리 기업 등 배터리 산업의 발전에 꼭 필요한 전후방으로 연계된 60개 이상의 조직이 참여한다. 국가 단위로는 콩고가 참여했고, 우리나라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참여 중이다.

GBA는 설립 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2020 세계경제포럼을 통해 10가지 지향점을 정하고, 다수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이를 발표했다.

10대 원칙에는 △배터리 생산성 극대화 및 재사용·재활용을 통한 순환 경제 추진 △온실가스 배출의 투명성 확보 및 감축 등 저탄소 경제 구축 기여 △질 높은 일자리 창출, 지역별류 창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SK이노베이션 김준 사장은 GBA 발표 자료를 통해 “GBA가 2030년까지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지속할 수 있는 밸류체인을 만들기 위한 지향점과 10가지 원칙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비전과 시간적인 목표가 SK이노베이션이 친환경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그린 밸런스2030’에 정확히 일치한다”고 밝혔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Wenger®
Swiss Made
Watches

A Swiss Company
since 1893



3 Year Warranty

Seaforce Chrono

010.643.111



WENGER®

wenger.co.kr

KOI COMPANY Co.,Ltd. 02)6403-2112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 벤처〉

“법적 기반 마련… P2P금융 ‘유니콘’ 탄생 머지않았죠”

규제개혁이 혁신생장의 답이다

⑦ 이원근 ‘넥펀’ 대표

P2P 금융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통과되면서 올해 8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온투법은 지난해 스타트업계의 애로 중 제대로 법안이 개정된 거의 유일한 사례다. P2P 업계에는 낙관과 우려가 교차한다. 법적 기반이 마련돼 P2P 산업이 급성장할 것이라는 전망과 동시에 부실 P2P 업체들이 정리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공존하면서다.

‘온투법’ 통과 P2P금융 제도권 안착… 시장 급성장 기대
선두업체 유리한 하위법령 나올 경우 업계 양극화 우려도
중고차 전문 담보대출 ‘넥펀’ 올해 대출 1000억 돌파 목표

또, 해당 법안이 산업을 지원한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규제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P2P 금융 서비스를 시작한 넥펀도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격변기에 놓인 P2P 스타트업 중 한 곳이다. 이원근(47) 넥펀 대표를 최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만나 속내를 들어봤다.

이 대표는 2015년 11월 창업에 나서기 직전에는 건설사 임원으로 재직했다. 건설사 전에는 금융사에 17년간 몸담았다. 그는 금융회사에 다니면서 주식, 펀드를 대체할 보완 재테크 상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이 대표는 “부동산 실물 투자는 소액 투자에 적합하지 않고, 주식이나 펀드는 소

액이 가능하지만 변동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며 “대체투자가 그 보완제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클라우드펀딩 업체인 넥스리치를 설립한 그는 P2P 금융이 급성장할 것이라는 전망 아래 2018년 넥펀을 세웠다. 넥펀은 자동차 담보 대출 전문 P2P금융 서비스를 지난해 3월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현재 누적 대출액 230억 원을 돌파했고, 연체율 0%를 유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일단 온투법 통과가 신산업에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지원이든 제재든 법적 기반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관련법이 부재했던 그동안은 쉽지 않았다.

그는 “법제화로 정부가 관리 감독이



가능해지면서 투자자들도 더 안심하게 되고, 이로써 시장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구체화 돼 투자자로서는 P2P 금융이 ‘더 괜찮은 선택지’가 된다는 뜻이다.

다만 이 대표는 염려의 기색도 내비쳤다. P2P금융을 제도권 안으로 안착시키고, 성장케 한다는 취지와 달리 법제화가 업계의 양극화를 조장할 수 있어서다.

그는 “그럴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고 전제하면서 “업계 선두 업체에만 유리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오히려 만들어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업의 역량은 결

국 리스크 관리 능력”이라며 “그 능력이 뛰어난 업체들이 시장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데 단순 누적 펀딩액이 기준이 돼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질까 우려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제도가 뒷받침하면 P2P 업체에서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 벤처기업)이 충분히 탄생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유니콘 아니라 그 이상도 가능할 것”이라며 “법제화 이전, 산업이 태동기인데도 시장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기준 P2P 업체의 누적 대출액은 6조2000억 원에 달한다. 2016년 6000억 원에서 2년 반 만에 10배 이상 성장한 것이다. 현재 업체 수는 비등록 업체를 포함해 2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넥펀은 동산인 중고차만을 담보로 하는 P2P 업체다. 부동산 담보대출은 취급하지 않는다.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를 피해 가는 수단으로 P2P 대출이 우회로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껴나 있는 셈이다.

이 대표는 넥펀이 동산 담보 대출을 취급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전제하며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대책에 따라 P2P의 부동산 대출에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경우 규제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유독 P2P 시장에서 부동산 비중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제도권에서 외면받은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려고 P2P가 활성화 된 것인데, 부동산 P2P에 쏠리면 P2P 본연의 역할이 약화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동산 대출을 발굴하려는 혁신이 업계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넥펀은 ‘대출액 1000억 원 돌파’를 올해 목표로 제시했다. 다만 이 대표는 그보다 연체율 0%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중고차 법인상사만을 차주 대상으로 하는 현 서비스에서 더 나아가 개인 차량 소유자들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다보스 찾은 황창규 “5G·AI, 인류 번영에 기여”

〈KT 회장〉

차세대 혁신기술 중요성 강조
현대중공업 스마트팩토리 등
5G기술 B2B 적용 사례 소개

황창규 KT 회장이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5G와 AI(인공지능)와 같은 차세대 혁신 기술이 인류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제 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27일 KT에 따르면 스위스 다보스에서 진행된 2020 세계경제포럼(WEF) 연례총회 ‘다보스포럼’에 황창규 회장과 이용규 5G 플랫폼개발본부장 등 주요 임원이 참석했다. 다보스포럼은 전 세계의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황 회장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열린 ‘차세대 디지털 시대를 위한 투자’를 주제로 한 세션에 패널로 참석했다.

황 회장은 세션에서 △KT 5G 적용 사례(B2B Use Case) △ICT 기업 간 ‘협력의 중요성’ 등에 대해 소개했다.

우선 황 회장은 KT가 다양한 산업에서 만들어진 5G 적용사례를 소개하며



“5G를 통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실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 제조업 혁신을 위해 KT와 현대중공업그룹이 함께 구축하고 있는 스마트팩토리나 스마트 조선소 사례를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황 회장은 글로벌 ICT 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KT의 사회공헌활동인 ‘기가스토리’ 프로젝트도 소개했다. 기가스토리는 도서

산간 지역에 네트워크 인프라와 ICT솔루션 제공을 통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KT의 공헌활동이다.

황 회장은 지난 2018년부터 3년 연속 다보스포럼에 참석했다. 2018년에는 ‘글로벌 감염병 확산방지 플랫폼’을 제안했으며 지난해에는 ‘5G가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삼표, ICT로 ‘안전·효율’ 두 토끼 잡는다

레미콘 전용 내비 업그레이드
‘커넥티드 시스템’ 연내 도입

삼표그룹은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된 레미콘 차량을 통해 ‘안전과 효율’이라는 두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지난 2015년 업계 최초로 레미콘 전용 내비게이션 시스템(사진)을 개발, 상용화에 성공한 삼표그룹은 더 안전하고 효율성을 높인 화물차 전용 안내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했다고 26일 밝혔다.

삼표그룹이 개발한 레미콘 전용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교통량이 많은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교통체증을 감소하고, 사고 예방을 높여 업계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ICT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 삼표그룹은 기존 길안내 시스템에 ‘레미콘 차량 이동 간격 유지 및 작업 상황 안내’, ‘공사 현장 상황 실시간 체크’, ‘차량 자원 공유를 위한 목적지 자동 길안내’, ‘음성 메시지 안내 서비스’ 등의 기능을 추가해 효율



성과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기존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앞서가는 차량(1대)의 운행 상황과 공사 현장에 대한 기본 정보만을 제공해왔다면 이번엔 선보인 업그레이드 버전은 앞뒤 4대 차량 이동 간격·작업상황을 체크해 보다 안전한 운행을 가능케 했고, 목적지인 공사 현장의 상세 상황 정보 안내로 효율성을 높였다.

아울러 삼표그룹은 건설기계 최초로 레미콘 차량에 커넥티드 시스템(Connected System)을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주행내역과 습관 등 주행정보를 수집하는 사물인터넷(IoT)을 탑재한 차량으로, 운전자에게 다양한 편의와 안전서비스를 지원한다.

최영희 기자 che@

정부 R&D 혁신제품, 공공기관 수의계약 허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의 4대 추진전략의 후속조치에 해당한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상황과 정책 수요자를 고려한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마련했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과기정통부 R&D성과를 제품화한 중소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중소기업이 대학·출연(원) 등으로부터 과기정통부 R&D성과를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후속지원’을 규정해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한 홍보 및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활동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조성준 기자 tiatio@

“삼성SDS, 브랜드 가치 4조3000억”

英 브랜드파이낸스 평가
글로벌 IT서비스 기업 11위
지난해보다 한 계단 상승

삼성SDS는 브랜드파이낸스가 실시한 IT서비스 기업 브랜드 가치 평가에서 전년 대비 한 계단 상승한 11위를 기록했다 27일 밝혔다. 영국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업체인 브랜드파이낸스는 삼성SDS의 브랜드 가치가 전년 대비 7% 상승한 37억 달러(4조3000억원)를 기록해 25대 글로벌 IT서비스 기업 중 순위가 상승한 2개 기업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브랜드파이낸스는 보고서에 별도 지면을 할애해 삼성SDS를 집중 조명했다. 보고서는 △IT서비스 시장의 평균을 상회하는 성장률 △AI·IoT·블록체인, 5G, 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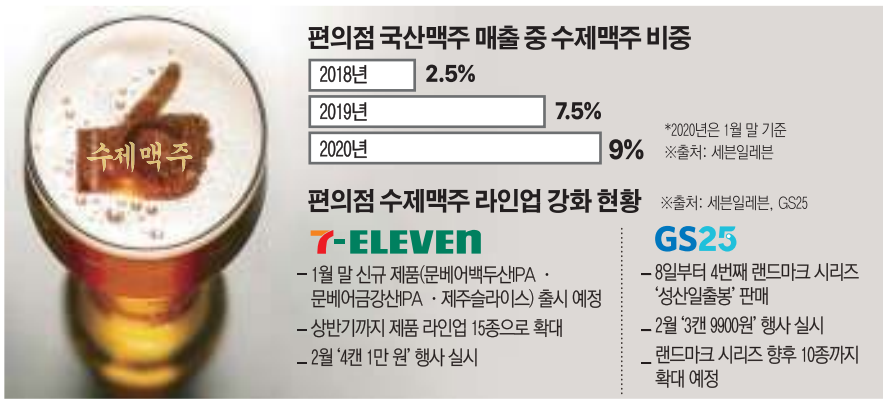
라우드 등 첨단 IT기술 기반의 사업 경쟁력 강화 △전략적 투자·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 △4대 전략사업(인텔리전트팩토리, 클라우드, AI·Analytics, 솔루션) 성장 등을 브랜드 가치가 급성장한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삼성SDS 임수현 최고전략책임자(부사장)는 브랜드파이낸스 인터뷰에서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는 현 시장 상황에서 IT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고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영희 기자 che@

종량세 탄력받은 국산 수제맥주, 편의점 ‘라이징 스타’

세븐일레븐 수제맥주 추가 후
5종 대상 ‘4캔에 1만 원’ 행사
GS25 ‘성산일출봉’ 신규 출시
내달부터 ‘3캔에 9900원’
주세법 개정에 수혜 기대감



1인 가구 증가에 힘입어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유통 채널로 평가받는 편의점 업계가 국내 맥주 시장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올해부터 주세법이 증가세에서 종량세로 개정되면서 국산 맥주가 수입 맥주와 비교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간 국내 맥주업계는 꾸준히 종량세로의 세제 개편을 요구해왔다. 판매관리비 등이 출고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수입 맥주의 경우 기존(종가세) 체제에서 국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냈다. 하지만 올해부터 주세 체계가 종량세로 바뀌면서 높은 원가로 불이익을 감수했던 국산 수제맥주가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돼 시장에 일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업계는 '할인 정책'과 '제품 라인업 강화' 등으로 시장 변화 속 고지 점령을 꾀하는 양상이다.

실제 수제맥주의 영향력은 확대되고 있다. 27일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국산맥주 카테고리에서 수제맥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2.5%에 그쳤으나 지난해 7.5%까지 상승했고, 올들어 26일까지 9.0%로 더 높아졌다.

세븐일레븐은 "일본 불매운동 영향으로 전체 외국산 맥주 수요가 주춤한 상황"이라며 "이달 국내 수제맥주 6종에 대한 3캔 9000원 할인 행사가 처음으로 진행됨에 따라 고객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세븐일레븐은 기세를 몰아 내달부터 수

제맥주 5종에 대해 '4캔 1만 원' 행사를 2017년 수제맥주 도입 후 처음으로 시행한다. 그간 '4캔 1만 원'에 할인행사를 해왔던 수입맥주에 가격경쟁력으로 충분히 대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세븐일레븐은 또 다른 3종에 대해서도 '3캔 9000원' 행사를 진행한다.

할인에 더해 상품 라인업도 강화한다. 세븐일레븐은 이달 말 수제맥주 3종(△문베어백두산IPA △문베어금강산IPA △제주슬라이스)을 신규 출시할 예정이다.

또, 세븐일레븐은 편의점에서 수요가 높은 500ml/캔 상품 위주로 상반기 내 수제맥주 제품을 15여 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세븐일레븐은 상품 구색과 매출 추이에 따라 진열 위치도 메인 존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오민국 세븐일레븐 음료주류팀장은 "주세법 변경에 따라 올해를 기점으로 수제맥주의 영역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편의점 시장에서도 수제맥주가 차별화 상품으로서 가치가 높은 만큼 맥주 매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예상했다.

GS25도 라인업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네번째 랜드마크 시리즈 수제 맥주인 '성산일출봉'을 지난 8일부터 판매하고 있는 것. GS25는 한국 랜드마크와 수제맥주를 연계해 2018년부터 차례로 △광화문 △세주백록담 △경복궁을 출시한 바 있다.

성산일출봉은 독일 맥주의 순수령 기준(밀, 옥수수 등이 포함되지 않고 보리만 사용)에 부합하게 만들어진 골든에일로 알코올 도수는 5.1%이다. 골든에일은 프리미엄 홉만을 사용해 강한 풍미와 향을 자랑하며 에일 애호가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다. 명품 수제 맥주 양조장인 제주브루어리에서 만들어지며 제주도의 맑은 물과 자체 배양한 효모가 사용됐다.

GS25는 신년 해돋이 장소로 유명한 일출봉에서 바라본 황금빛 물결을 골든에일에 부합하게 형상화해 맥주캔에 디자인했다. 제품 가격은 4500원이며, GS25는 내달부터 '3캔 9900원' 판매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GS25는 향후 수제맥주의 가격 경쟁력 강화에 힘입어 제품을 찾는 고객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 '수제맥주 4캔 1만 원' 행사도 검토하고 있다.

GS25는 혼맥족(혼자 집에서 맥주를 즐기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맥주 한 잔을 마셔도 프리미엄급으로 즐기려는 트렌드가 확산되는 데다 일본 맥주를 즐기던 소비자들이 일부가 국산 수제 맥주로 돌아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구중 GS리테일 MD는 "GS25의 수제맥주가 지난해 품질을 인정 받아 국제 주류 품평회에서 연이어 메달을 수상하는 등의 경사를 맞았다"며 "GS25 랜드마크 수제 맥주를 10종까지 확대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실내 자투리 공간도 효율화? 카트, 밖으로 빼낸 홈플러스

안전조치라지만 임대 나설 듯

홈플러스가 새해부터 쇼핑 카트 보관장소를 점포 외부로 옮긴다. 회사 측은 고객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대형마트들이 잇따라 점포 효율성 강화에 나서면서 매장 임대 등 수익 사업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올해부터 매장 내 쇼핑카트 보관장소를 없애기로 결정하고 점포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쇼핑카트의 외부 비치로 인해 고객들은 건물 밖이나 주차장 등에서 쇼핑 카트를 끌고 와야 한다. 코스트코와 유사한 방식이다.

원래 홈플러스의 쇼핑카트 보관 장소는 점포 외부였으나 매장 입구 근처에 임의로 카트를 모아뒀 쇼핑객 편의를 높였다가 이를 완전히 없애기로 한 것이다. 서울 가양점은 새해 첫날부터 실내 카트 보관 장소를 없앴고, 영등포점은 내달 3일부터 각종 주차장 및 1층 실외 출입구 앞에 카트를 모아두기로 했다.

홈플러스관계자는 "점원이 실내로 카트를 끌고 올 때 위험하다"면서 "전국 140여 개 점포에 순차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대형마트에서 카트 위치를 일

괄적으로 정해서 운영하기로 한 곳은 홈플러스가 유일하다. 이마트는 점포별로 고객 동선을 고려해 외부나 내부에 쇼핑 카트 구역을 만들어 운영한다. 롯데마트 역시 점포별로 고객이 쇼핑카트를 필요로 하는 공간을 예상해 모아둔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최근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있는 홈플러스가 임대 등 수익 사업으로 점포 효율성을 높이는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홈플러스는 지난해부터 점포 공간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 중이다. 지난해 점포 공간 일부에 풀필먼트(FC)를 만들어 온라인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풀필먼트는 물류업체가 고객 주문에 맞춰 상품을 분류 및 포장, 배송하는 것이다. 현재 2곳의 FC를 운영중인 홈플러스는 2021년까지 총 10개 점포에 이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참고 서비스 '더 스토리지'도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점포 내 공간을 대여해 개인 창고로 활용하는 수익 사업이다. 지난해 7월 일산점에 첫 선을 보인 '더 스토리지'는 최근 부산 서면점과 수원 원점점에도 도입했다. 특히 일산점은 현재 이용률이 85%에 육박할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남주현 기자 jooh@



안마의자로 '명절 피로' 녹이세요 이마트 영등포점 일렉트로마트에서 27일 모델들이 안마의자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마트는 설 명절 피로 해소를 위해 내달 5일까지 '바디프렌드 안마의자 팬텀2 브레인(458만 원)', '코지마 안마의자 시스템(198만 원)' 등을 행사 카드로 구매 시 최대 40만 원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사진제공 이마트

‘국민 즉석밥’ 햇반, 23년간 3兆여치 팔렸다

지구 10바퀴 분량 30억 개 판매

국내 대표 즉석밥 CJ제일제당 '햇반'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CJ제일제당은 햇반이 지난해 말 기준 총 누적 매출 3조 원, 누적 판매량 30억 개를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 23년간 판매된 햇반은 나란히 배열하면 둘레 4만192km의 지구를 10바퀴가량 돌릴 수 있는 수량이다. 그간 사용한 쌀의 총량은 400만 가마니에 육박한다.

1996년 12월 출시된 햇반은 매해 두 자릿수 이상 성장률을 보이며 국내 즉석밥 시장 성장을 주도해왔다. 2019년만 보더라도 전년 대비 15% 성장한 4860억 원(소비가환 기준) 매출을 기록하며 모두 4억5500만 개가 팔렸다. 국민 1인당 한 해에 햇반을 9개씩 먹은 셈이다.



매출 성과에 힘입어 상은 즉석밥 시장에서도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해 닛센코리아 기준 햇반 시장점유율은 71%를 기록했다. 지난해 즉석밥 시장 규모는 3920억 원으로, 전년(3656억 원)과 비교해 7%가량 성장했다.

신수진 CJ제일제당 햇반핵심팀 부장은 "햇반은 식품 관련 기술이 집약돼 있는 상온 HMR 대표 제품"이라며 "다양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는 제품들을 선보이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홈쇼핑, 설에 지친 주부 겨냥 ‘힐링 상품전’

홈쇼핑업계가 명절 직후 곧바로 '포스트 설' 마케팅에 돌입한다. 명절 후에는 제사상 차리기와 손님맞이 등으로 지친 주부들이 명절증후군 스트레스를 쇼핑으로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크다. 홈쇼핑업계는 이들을 겨냥해 화장품 및 의류 등 패션·뷰티와 명품, 여행 상품 등을 내놓는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홈쇼핑 업체들은 올해도 연휴 직후인 27일부터 30일까지 패션 의류와 화장품 등의 방송을 확대했다. GS홈쇼핑은 28일 오전 1시부터 집에서도 사우나를 즐길 수 있는 '올가휴 건식 반신욕기' (57만9000원)를 판매한다. 같은날 오전 8시 15분부터는 '페라가모 미니어쳐 메탈 시계' (59만~69만원), '뉴간치니 메탈 시계' (79만 원) 등 명품 시계 방송이 준비됐다.

CJ오쇼핑은 연휴 직후엔 보상 심리를 기반으로 나를 위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패션 세일 특가전을 29일까지 진행한다. 대표 패션 상품과 패션 잡화, 스포츠 의류를 최대 50% 이상 할인해 특가로 판매하는 기획전으로 오전 10시 25분부터 4시간 동안, 새벽 1시부터 3시간동안 연이어 패션 상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롯데홈쇼핑도 주부들을 겨냥한 포스

CJ 패션·롯데 명품 집중 편성



로보 리버시를 더블버튼 롱 무스탕(왼쪽)과 로베르토 카발리 머플러.

트 명절 상품을 집중 편성했다.

먼저, 해외 명품 브랜드 상품을 집중 편성했다. 28일 오전 11시 35분에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프라다(Prada)' 가방과 카드 지갑 등을 판매한다. 내달 2일에는 오후 12시 30분에는 '꾸찌' 가방을 선보인다.

문화공연과 여행 상품도 다양하게 편성했다. 29일 오후 11시 50분에는 뮤지컬 '위윌락유(We Will Rock You)' 예매권을 정가가 대비 50% 할인된 가격

에 선보이고, 내달 2일 오후 5시 35분에는 '미국 동부-캐나다 여행상품'을, 같은날 오후 9시 35분에는 '하노이 여행상품'을 선보인다.

김종영 롯데홈쇼핑 마케팅부장은 "명절 연휴 이후 명품 패션 브랜드부터 공연, 여행상품까지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줄 다양한 힐링 상품을 편성했다"며 "쇼핑을 통해 힐링도 하고 명절을 건강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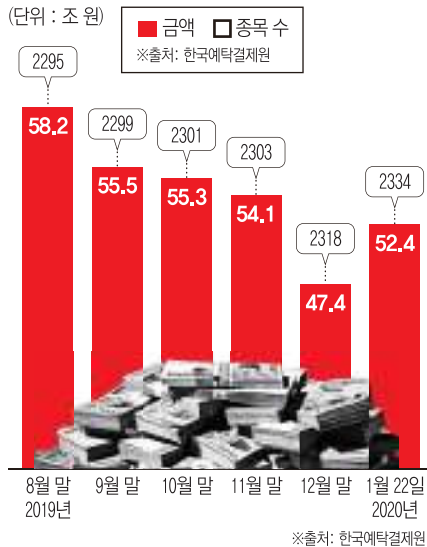
현대홈쇼핑은 특히 명절 직후 해외명품과 패션 등 프리미엄 브랜드 방송이 호조를 보이는 만큼 관련 상품을 중심으로 집중 편성했다. 27일 '엠포리오아르마니 패딩 의류', '발렌시아가 B라인 신상백'을 시작으로 28일에는 '프라다 구스다운', 29일은 '펜디 카메라백 시리즈' 등을 연이어 방송한다.

NS홈쇼핑은 28일 오전 9시 25분 할부 10개월 무이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동모피 폭스베스트'를 방송하고, 29일 오전 10시 25분에는 '엘렌실라 달팽이 크림 특집전'을 편성했다. 이어 30일 10시 25분에는 자사 패션프로그램인 'V라운지'에서 명절증후군을 날리는 '명품 특집전'을 방송한다.

남주현 기자 jooh@

올 들어 대차잔고 5兆 증가… ‘하락 베팅’ 늘었다

월별 대차거래 잔고 추이



지난해 말 급감했던 대차잔고가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코스피가 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하락장을 예상하는 투자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22일 기준 대차거래 잔고 금액은 52조4746억 원으로 전월 대비 10.6% 늘었다.

앞서 지난해 8월 58조2069억 원까지 증가했던 잔고는 10월 55조3347억 원, 11월 54조1680억 원, 12월 47조4076억 원 등 지속적으로 감소한 바 있다. 그러나 올 들어 V자 형태로 반등하고 있다.

대차거래 잔고의 증가와 함께 대차거래 잔고 주식 수도 증가세다. 이달 22일 기준

잔고 금액 지난달보다 10%나 경충… 주식 수도 증가세
코스피 연초부터 상승밸리 속 조정장 예상 투자자 늘어
“쇼트커버링으로 이어져 증시 부담 크지 않을 것” 의견도

잔고 주식 수는 20억9433만 주로 전월 대비 6.82% 증가했다.

대차거래는 차입자가 기관투자자 등에 게 일정한 수수료와 담보물을 지불하고 주식을 빌린 뒤 추후 대여자에게 같은 주식을 갚기로 하는 거래를 뜻한다.

이에 공매도 선행지표로 통하기도 한다. 공매도는 앞으로 주가가 더 내려갈 것으로 예측하고 미리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실제로 내려간 뒤에 산 가격에 되사서 값은 투지 기법으로, 투자자들은 향후 주가 조정이나 하락에 대비해 대차 물량을 늘리게 된다.

대차거래로 차입한 주식 중 상환하지 않고 남은 주식의 금액을 뜻하는 대차잔고가 증가했다는 것은 주가 하락을 전망하는 투자자가 많아졌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현재 코스피는 마·중 1단계 무역합의와

반도체 업황 반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밸리가 이어짐에 따라 주가가 단기 급등했다는 인식도 퍼지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차 물량 일부는 주가연계증권(ETF) 거래 설정 등의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모든 물량이 공매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김동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차잔고가 늘었다는 것은 빌린 주식이 많다는 의미로 꼭 공매도 대기 물량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대차한 물량을 팔더라도 결국 주식을 되사는 쇼트커버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인적분할 후 10년째 적자… 부채비율 330%

한계기업 돋보기

우리들휴브레인

작년 적자 규모를 소폭 축소한 우리들휴브레인의 실적 개선세가 올해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우리들휴브레인은 2010년 이후 10년째 적자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우리들휴브레인은 지난해 3분기까지 연결기준 누적 18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적자가 이어졌으나 전년 35억 원 손실과 비교하면 손실 규모가 줄었다. 다만 회사 운영과 타법인 증권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사채 발행으로 충당한 탓에 부채비율은 전년보다 악화했다.

우리들휴브레인은 2009년 우리들제약의 메디컬(의료기기) 사업이 인적분할돼 설립된 회사다. 사업 부문으로는 의료기기와 의료용품을 판매하는 메디컬과 피트니스 서비스 및 기구를 파는 생활건강, 의약품, 스토리지 등이 있다. 2017년 그린벨시스템즈 인수를 계기로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된 스토리지 부문이 전체 매출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약품이 13.3%, 생활건강 3.5%, 메디컬이 1.2% 순이다. 4개 사업 부문 모두 손실이 나는 가운데 의약품과 생활건강에서 전체 적자의 80%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들휴브레인의 적자는 최근 수년간

우리들휴브레인 연결재무제표 추이

(단위 : 원, %)

회사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3Q
매출액	83억	356억	345억	401억
영업이익	-48억	-31억	-66억	-18억
순이익	-86억	-29억	-121억	-57억
부채비율	114.7	96.4	231.9	337.7

2009년 우리들제약서 인적분할

적자 80% 의약품·생활건강 사업

운영자금, 외부차입·증자에 의존

2년간 CB 450억…연매출보다 많아

갑작스레 벌어진 일이 아니다. 인적분할된 2009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개별기준 3억여 원의 흑자를 낸 이후 작년까지 손실이 계속됐다.

수익을 내려면 규모를 키워 생산단가를 낮추거나 판매비를 줄여야 하는데, 우리들휴브레인은 양쪽 모두에서 실패를 거듭했다. 2014~2016년에는 매출원가가 매출보다 커 매출총이익부터가 적자였다. 쉽게 말해 제품 판매가격이 1000원인데 생산원가는 1100원이어서 물건을 팔아도 손해라는 의미다. 또 이 시기를 제외한 나머지 회기에는 매출총이익이 나더라도 판매비보다는 적어 영업손실을 냈다. 이에 수년간 누적된 적자와 쌓여가는 결손금을 털어

내기 위해 2009년 감자비율 90%로 자본 감소를 했다.

영업손실이 지속하다 보니 이자보상배율은 당연히 산정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영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여서 운영자금 대부분은 외부 차입이나 증자를 통해 조달하고 있다. 특히 최근 2년간 짝어낸 전환사채(CB)가 450억 원으로 2017년과 2018년 기록한 350억 원대 연매출을 훌쩍 넘는다. 이 때문에 부채비율도 2017년 연결기준 96.4%에서 작년 3분기 337.7%로 경충 뛰었다. 아울러 해당 사채 중 300억 원 규모의 CB 전환가격은 1900원대인 반면, 최근 회사 주가가 5000원대까지 올라 차익실현 목적의 오버행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편 우리들휴브레인은 본업 부진을 상쇄하기 위해 2013년 우리들교육과 2017년 다미팜, 그린벨시스템즈 등을 인수했다. 하지만 이들 자회사나 투자회사 역시도 성적이 좋지 않아 실적 개선에는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영업손실 추이를 보면 2017년부터 작년 3분기까지 개별로는 각각 -31억 원, -50억 원, -15억 원인 반면, 연결기준으로는 각각 -31억 원, -66억 원, -18억 원으로 적자폭이 컸다. 다만 작년 들어 적자 규모가 전년보다 줄었다는 점은 위안거리다.

조남호 기자 spdran@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인컴형 펀드’ 인기 시들… 석달 새 1400억 감소

3개월 수익률 3.59%… 국내외 주식형 펀드보다 떨어져

전문가 “우한폐렴 등 세계증시 악재… 인컴형 펀드 필요”

인컴(일정 수익)형 펀드 설정액이 감소하는 등 투자 열기가 식어가고 있다.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안정적인 수익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23일 금융정보업체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에 설정된 인컴 펀드 115개 설정액은 2조8930억 원이다. 최근 3개월간 1404억 원이 줄어든 수치다. 펀드 개수는 지난해 10월 105개에 비해 10개가량 늘었지만 정작 설정액 규모는 -4.63% 감소했다.

펀드별로 보면 ‘하나UBSPIMCO글로벌인컴혼합자산투자신탁’ 설정액은 최근 3개월간 가장 많은 3267억7160만 원이 줄었다. 해당 펀드는 글로벌 채권과 주택저당증권(MBS), 자산유동화증권(ABS

) 등 채권형 펀드에 재간접 투자하는 상품이다.

일반 채권을 담은 ‘이스트스프링플렉서블인컴증권투자신탁(569억199만 원)’, 글로벌 채권에 투자하는 ‘삼성누버거버넌스글로벌인컴증권투자신탁(144억2333만 원)’도 설정액이 줄었다.

채권과 고배당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미래에셋배당과인컴증권투자신탁(-138억7809만 원)’, ‘피델리티글로벌멀티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63억4896만 원)’ 등에서도 설정액 감소세가 이어졌다.

안정적이지만 낮은 수익보다 위험자산 투자를 통해 상승장에서 초과 수익을 얻으려는 투자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따라서 상승 장에서는 수익이 상대적으로 낮다. 최근 3개월간 국내 주식형 펀드가 10.88%, 해외 주식형 펀드가 8.68%인 반면 인컴형 펀드는 3.59%에 불과했다.

아울러 연말 배당 시즌이 지나가면서 배당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배당을 받고 나면 배당주에 대한 투심은 식기 마련”이라며 “현재 증시에서도 대부분의 배당주가 유의미한 증가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인컴형 자산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연초부터 미국·이란 갈등과 중국 우한폐렴 등 갑작스러운 악재가 발생하는 등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수익을 담보하는 인컴형 펀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다원 기자 leedw@

상지카일룸 관계사 반대매매에

이노그로스, 포티스 경영권 잃나

포티스의 최대주주인 이노그로스가 상지카일룸 관계사의 반대매매로 경영권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포티스는 최대주주인 이노그로스가 지투인베스트에 담보로 맡긴 주식 938만863주가 기한이익 상실로 전량 반대매매됐다. 이에 따라 이노그로스의 지분율은 10.91%에서 1.44%로 쪼그라들었다. 주가는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진 전날 오후 들어 거래량이 전일 대비 33배 급증하며 종가 기준 24.84% 급락했다.

지투인베스트는 손진복 상지카일

룸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자가 담보물을 처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대매매 우려를 진정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해당 내용을 공시한 지 약 2주, 거래일 기준으로 불과 9일 만에 또 다른 담보권자인 지투인베스트가 반대매매를 실행했다. 반대매매가 없다는 회사 발표를 믿고 있던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볼 위기에 놓인 셈이다.

경영 상황 역시 불투명해졌다. 다음 달 3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복권·바이오·엔터테인먼트를 사업목적에

지분을 10.91%→1.44%… 주가 24.84% 떨어져

‘40억 유증’ 주총 불투명… 자금 계획 차질 불가피

룸 이사가 대표를 맡은 컨설팅 회사다. 손 대표는 상지카일룸의 자회사인 채움인베스트먼트라는 대부업체에도 비상근 임원으로 근무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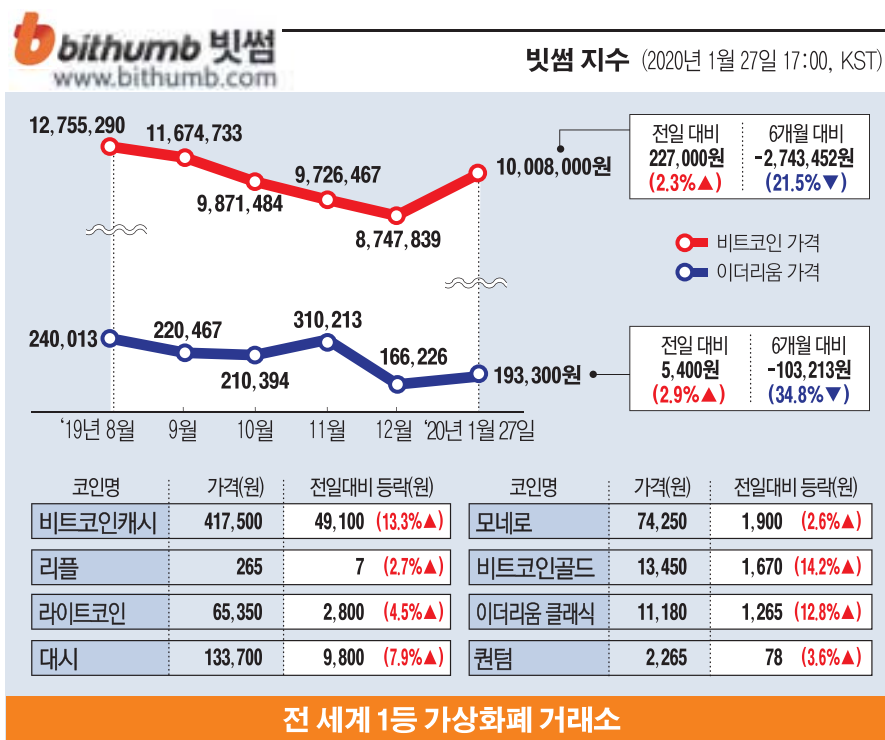
이번 반대매매로 포티스의 주주와 경영진은 모두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포티스는 3일 지투인베스트먼트와의 대출계약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다고 공시했다. 특히 9일에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담보권을 맡고 있던 CB(전환사채)와 주식 등에 대해 “기한이익을 상실했던 채무자 전부가 대출의 기한이익을 회복했다”며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던 담보물에 대한 처분

추가하고, 5명의 사내·사외이사와 1명의 감사를 선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대주주의 지분이 쪼그라들면서 의결 정족수를 맞추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해당 주총은 40억 원 규모 유상증자가 걸려 있어, 향후 자금 계획에도 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포티스는 에이플러스컴퍼니로부터 다음 달 21일 유상증자를 받기로 하고, 이에 앞서 임시주총을 열어 이 회사 대표 등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기로 했다. 이사 선임에 실패할 경우 유상증자 역시 자동으로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박기영 기자 pgy@



아파트 청약, 내달부터 ‘청약홈’에서 간편하게 하세요

분양 카운트다운...4월까지 9만여 가구 쏟아진다

상한제 유예 종료·총선 앞두고 밀어내기 붐물
‘로또 분양’ 기대감에 청약경쟁 더 치열해질 듯
低가점자 대규모 단지·무순위 청약 노려볼 만

설 연휴 이후 분양시장에 큰 장이 열린다. 청약업무 이관 작업으로 일정을 미뤘던 단지들과 4월 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종료 전 분양하려는 단지들이 일시에 몰리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 ‘로또 분양’ 기대감에 청약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청약가점 인플레이 속 고가점자들은 시기에 얽매이지 않고 청약시장에 뛰어들 수 있지만 애매한 가점의 청약 대기수요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전의 분양 물량이나 무순위 청약, 공급량이 많은 단지 등에 전략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모두 88곳, 9만5277가구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나온 4만7000여 가구보다 2배가량 많은 물량이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만 6만2768가구에 이른다.

청약업무 이관 작업에 분양시장이 잠정 중단되면서 분양이 지연된 데다 4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종료와 총선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밀어내기 분양을 계획하면서 분양이 집중된 영향이다.

월별로는 2월 2만1699가구를 시작으로 3월 3만1106가구, 4월 3만7722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 4월 분양 물량은 올해 상반기 중 가장 많은 수치로 그야말로

2~4월 전국 주요 분양예정 단지

분양 시기	지역			단지명	총 가구수	분양 가구수	전용 면적(㎡)	건설사	
2월	경기	수원시	매교동	209-14일원(팔달8구역)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3603	1795	59~110	대우건설·SK건설
	부산	수영구	남천동	부산삼익타워 재건축	부산삼익타워	913	116		GS건설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B12블록	인천검단 우미린	436	436	59.84	우미건설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곡지구	마곡지구 9단지 공공분양	962	962		LH
3월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례신도시 A3-2블록	위례신도시 우미린2차	420	420	99.112	우미건설
	경기	고양시	덕은동	덕은지구 A4블록	고양덕은A4	702	702	84~99	GS건설
4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둔촌주공재건축	12032	4786	29~167	현대건설·대우건설+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서울	성동구	성수동7가	617-179일원	서울숲2차 아이파크	825	·	·	HDC현대산업개발
	경기	안산시	원곡1동	830번지 외	원곡연립1 재건축	1714	588	49~84	대우건설
	서울	노원구	상계동	95-3번지일원	상계6구역	1163	724		롯데건설
	경기	성남시	신흥동	126번지 외	성남 신흥2구역	4774	1962	51~84	대우건설·GS건설

※출처:부동산인포

분양 대목이 펼쳐질 전망이다.

수도권에선 총 6만1408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서울에선 총 1만9775가구가 쏟아지지만 이 중 60%가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아파트(1만2032가구)에서 나온

다. 그 외 동작구 흑석3구역 사이(1772가구),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3차(330가구), 노원구 상계6구역(1163가구) 등 곳곳에서 아파트가 공급된다. 경기와 인천에서는 각각 2만9969가구, 1만1664가구가 분양된다. 위례신도시하남권역에선 ‘위례신도시우미린2차’와 ‘위례중흥S클래스’, 수원시 매교동 ‘매교역푸르지오SK뷰’ 등이 나올 예정이다. 지방에선 수도권의 절반 수준인 2만9119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 청약시장은 지난해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발표 후 새 아파트 공급 부족 우려에 청약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과열 양상으로 치달았다. 특히 서울에선 새 아파트 선호 현상과 정부의 분양가 통제에

‘로또 분양’ 단지를 잡는 게 곧 재테크라는 인식이 강해져 지난해 서울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28대 1로 2009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청약 가점 인플레이에 서울에선 만점(84점)에서 불과 5점 부족한 79점의 고가점들이 대거 청약에 나섰다. 단지별 당점 최하점도 50~60점을 웃돌았다. 서울 청약통장에서 1순위 가입자가 3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올해 청약시장 역시 과열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전문가들은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들이라면 분양가 상한제 이후 나오는 분양 물량을 적극 공략하라고 조언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입지가 좋은 단지들이 매력적인 분양가로 공급될 것”이라며 “고가점자들은 상한제 적용 단지를 노려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문제는 새 집을 노리는 40~50점대의 애매한 수준의 가점자들이다. 전문가들은 눈치싸움이 치열한 서울과 과천, 위례신도시 등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중 공급 물량이 많은 단지를 공략하는 것도 방법으로 꼽는다. 무순위 청약도 고려할 만하다. 무순위 청약은 당점 포기 등으로 발생한 잔여 가구의 청약을 받는 제도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당첨자는 100% 추첨 방식으로 고른다. 22일 진행된 인천 미추홀구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주안’은 평균 135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감정원 새 청약시스템서 자격확인 가능

GIS기반 정보 제공...예비청약자 관심 고조

설 연휴 이후 청약시장이 본격 기지개를 켜 전망이다. 청약시스템 이관 작업으로 이달 1일부터 중단됐던 신규 입주자 모집이 다음 달 재개되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은 다음 달부터 새로운 청약시스템 ‘청약홈’을 운영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주택 소유 여부, 부양 가족 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청약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당첨 취소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또한 분양 예정단지 인근의 기존 아파트 단지·시세 정보, 최근 분양단지의 분양가·청약경쟁률도 확인할 수 있다. 감정원은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에 다시 문을 여는 청약시장에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4월 말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5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수준이 낮아져 청약경쟁률은 더 치열해지고, 그만큼 청약당첨 확률은 떨어질



신규 청약시스템 개요	
사이트명	청약홈
운영기관	한국감정원
정보제공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 신청자격 사전 확인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 신청 가능 -기존 아파트 단지정보 및 시세정보,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 및 청약경쟁률

※자료출처:한국감정원

수 있다는 불안감에 청약시장에 미리 뛰어 들자는 조급함이 커지고 있다. 청약시스템 이관 직전에 시행했던 민간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온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방증한다.

서지희 기자 jhsseo@

작년 땅값 3.92% 상승...경기 하남 ‘6.9%’ 1위

작년 땅값은 전년 대비 올랐으나 거래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세종·광주 순으로 땅값이 오른 가운데, 특히 경기도 하남시가 3기 신도시 개발 호재로 시·군·구 땅값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한 해 전국 땅값 상승률이 3.9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년도 연간 변동률(4.58%) 대비로는 0.66%포인트 하락했다.

시·도별로는수도권(5.14%→4.74%)과 지방(3.65%→2.51%) 모두 상승폭이 둔화된 가운데 서울(5.29%)·세종(4.95%)·광주(4.77%) 순으로 상승했다. 시·군·구별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경기하남시(6.90%)였다. 작년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290만2000필지(1869.6km)로 서울 면적의 약 3.1배다.

문선영 기자 moon@

모두를 위한 SK증권 로보어드바이저

SHAKE는 고도화된 알고리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 맞춤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입니다 {by 쿼터백}

※SK증권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충분히 그러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위험에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스파르본 매매수수료(주식) 0.15% + 1천원 ~ 0.05% + 1백만원 (거래금액별 차등, 세부 수수료들은 당사 홈페이지 참조)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차 테스트베드 통과
※최소투자액 통과가 해당 알고리즘의 품질이나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객센터 1999-8245

감사보고서 제출 늦었다며 담보주식 처분 법원 “유안타證, 13억 배상하라”

항소심서도 대출업체 승소... 손해배상액 늘어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담보주식을 처분한 유안타증권이 대출 업체와 벌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유안타증권은 13억 원을 물어주게 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남양우 부장판사)는 코스닥 상장사 대표 A 씨가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5년과 2017년에 자신의 회사 주식을 담보로 유안타증권과 주식담보대출약정을 체결한 뒤 총 27억 원을 빌렸다.

그러나 유안타증권은 A 씨 회사의 2017년도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자 상환액(6억 원)을 제외한 담보주식 일부(21억 상당)를 매도했다. 당시 유안타증

권의 대량매도로 A 씨 회사의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 회사의 감사보고서는 ‘적정’ 의견으로 제출됐다.

A 씨는 유안타증권이 법령상·계약상 근거 없이 담보주식을 임의상환 처리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이 대출 약정 특약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1심과 마찬가지로 유안타증권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로 ‘파산신청, 자율협약 신청, 워크아웃 신청’ 등에 준하는 채권회수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유안타증권의 손해배상 범위를 총 13억7000만 원으로 증

액했다.

재판부는 “담보주식이 낮은 가격으로 매도돼 손해를 본 전일 종가 대비 차액 9억6200만 원과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증권거래세, 매매수수료 등 4억4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A 씨가 주장한 경영권 프리미엄 손해, 세금 납부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손해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유안타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담보주식이 하한가로 매도돼 발생한 손해 9억6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주식을 매도한 유안타증권 직원 B 씨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A 씨는 항소심에서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산천어 잡으러 오세요 따뜻한 이상기온으로 두 번이나 연기됐던 ‘2020 화천산천어축제’의 개막일인 27일 오전 강원 화천군 화천천 일원 축제장에서 관광객들이 얼음낚시를 즐기고 있다. 이번 축제는 다음 달 16일까지 21일간 열린다. 연합뉴스

이부진·임우재 이혼 확정... “141억 지급하라”

대법 “친권·양육권은李 사장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이 5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이 사장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있다는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또 재산분할에 대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유지됐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은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처음 이혼 조정신청을 낸 이후 5년 3개월간 진행됐다.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000억 원대 규모라고 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장하며 절반가량인 1조2000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86억 원 늘어난 141억1300만 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친권·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있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원고(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한 부분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원고의 적극 재산이 추가된 부분이 있고, 피고(임 전 고문)는 소극재산(채무)이 추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수천 기자 int1000@

법원 “건설노조원 우선채용 타워크레인 단협 조항 위법”

건설현장 채용 관행 제동

건설 현장에서 특정 노조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건설노조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을 상대로 “2017년도 단체협약 조합원 우선채용 조항에 대한 시정 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건설노조는 2017년 10월 타워크레인협동조합과 ‘조합원 우선채용’ 조항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2018년 조합원 우선채용 조항이 “사용자

에게 건설노조 조합원만 채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위법하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건설노조는 “조합원 우선채용 조항은 노조원에 대한 고용 기피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넣은 일반채용 조항”이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은 원고의 조합원인지 여부에 따라 그 채용에 있어 차별을 두고 있다”며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도 인정되지 않아 헌법상 평등권과 고용정책 기본법에 위배되는 위법한 조항이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금지규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 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 규정에 해당한다”며 “타워크레인협동조합 이사

장 등이 이를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받아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타워크레인협동조합 이사장과 전국 23개 타워크레인 사업자로부터 단체협약 교섭권 및 체결권을 위임받은 A 사의 대표이사는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부당노동행위)로 지난해 벌금형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더불어 재판부는 해당 단협 조항이 △원고 조합원 소속이 아닌 자들의 평등권과 취업 기회, 단결권까지 침해할 여지가 있는 점 △노동조합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점 △협동조합 등 사용자 측의 인사 경영권까지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인 점 등을 이유로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도 위배된다고 봤다.

김종용 기자 deep@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1월호 발매

COVERSTORY 웰컴 에이징

PART1. 나이 불의 미학 - 늙음과 늙음, 한 획 차이
PART2. 나이만큼 아름다워지는 삶 - 나이 들의 품격 '어르시나'에게 듣는다
PART3. 노화의 선물 - 백발이 빛 발하는 나이
PART4. 나이가 아닌 품격을 만든다 - 스타일 나는 인생
PART5. 웰에이징 설명서 - 나이 막으면 좀 아껴
PART6. 우리들의 특권 - 화려한 VIP '오달세대'를 위하여!!
PART7. '2019 제1회 KMA시니어모델 선발대회' 수상자 - 제2의 멋진 인생을 열다

다들어 숲
하는 아래 처음 열린 길

귀촌
귀농으로 얻은 경제, 그리고 긍정의 힘

그녀는 오랫동안 암 투병을 했다. 유방암 일기 전단을 받았었다니 실로 격렬한 싸움이었을 것이다. 음산한 죽음의 공기를 숨 쉬며 처절하게 건물을 깨다. 알고 보면 허둥여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게 죽음이라는 고상한 소식도 있지만, 일단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본능이지 않은가. 한때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려했었다는 이운경55씨는 불굴의 의지로 결국은 10여 년 만에 암을 물라쳤다. 투병 후반기 귀농이 일종의 묘약이었다.

신라비가 만난 사람

“직원이 추천한 회사를 만들어서 행복하다”
55세 박종규 씨가 통찰한 인생과 경영 해법

“있는 그대로 재미있게 사는 것이 중년의 맛”
백두 총요섭, 물론 길을 걷는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말한다

불기락이 파범벅
오방난전야! 되더라도
출타기 명인
김대균

두어 가이드
중세와 현대의 절묘한 조화를 보여주는 불의 도시 '바쿠'

신과 신화, 인간들의 이야기가 풍성한 코카서스 3국의 첫 번째 여행지는 아ذرب라이잔의 수도 바쿠Baku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첫 여행지가 됐다.

한글해 길림 진수성찬 없어도 입맛 절로 나는 사래기와 우거지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이런 의문에 대한 스스로 마음하게 물었던 해단들을 이야기하고 싶다. 부족한 재주로 나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틀릴 수도 있다. 여러분의 물결은 차척도 기대한다.

시니어 밥상
홈메이드 사찰음식+
항산화 성분 가득,
카카오닙스 활용 레시피

프로 골퍼 김용준 칼럼
김용준
돌아오라
돌 왓슨이여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독자 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승객 대기시설〉

“첨단기술 더한 횡단보도·셸터… ‘스마트 포용도시’로”

서울 동맥을 가다 ④

정 원 오 서울 성동구청장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에 ‘포용’의 가치를 더해 ‘스마트 포용도시’를 조성하겠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2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주민의 작은 불편도 크게 여기고 사람 중심 기술을 구현해 스마트 포용도시라는 ‘성동형 도시브랜드’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동구는 지난해 민선7기 새로운 도시 비전인 스마트 포용도시 실현을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서울시 및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실행 기반을 다져왔다.

우선 서울 동북권 중심지인 왕십리는 4차 산업 기술을 통해 도심 속 휴식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스마트 도시의 메카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성동구는 스마트셸터, 대중교통 종합안내 서비스, 스마트 주차장 공유서비스, 보행알림 서비스, 사각지대 교통안전 알림서비스 등 첨단 기술이 반영된 교통편의 서비스를 제공해 서울의 대표적인 스마트 교통도시를 향해 발돋움하고 있다.

정 구청장은 “지난해 12곳에 조성한 스마트 횡단보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컸다”며 “LED 바닥 신호등, 음성안내 장치, 보행자센서처럼 횡단보도 안전과 관련해

LED 바닥 신호등·보행자센서 차량정지선 100% 지켜져

주차장 공유·사각지대 알림… 왕십리 스마트 교통도시 조성

마장·용답·송중동 인프라 확충 금호동엔 복합문화센터 건립



가용할 수 있는 것은 다 접목했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정지선이 100% 지켜져 어린이도 마음 놓고 횡단보도를 다닐 수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요 구역 30여 곳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다수 주민을 위한 셸터는 ‘더 똑똑하게’ 만든다. 정 구청장은 “현재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셸터는 박스 형태로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실용성이 떨어진다”며 “미세먼지, 추위, 더위로부터 보호받고 와이파이 등 스마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셸터를 상반기 내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생활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추진해 더욱 살기 좋은 성동구로 거듭나게 할 계획이다. 정 구청장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마용송(마장·용답·송중동)’에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인프라를 확충해 주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살기 좋은 성동구’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제공 성동구청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성동구가 단기간에 살기 좋은 동네로 인식되면서 문화시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졌다”며 “민간기업과 협의해 공연장을 설립하고 독서 우수지와 금호동에 각각 복합문화체육센터와 ‘성동맘엔키즈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동구는 지난해 정부가 주관한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2019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 등에 선정돼 국비 약 60억 원을 확보했다. 특히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설 금호·옥수 지역은 최근 수년 사이 완료된 재개발 사업으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형성돼

‘3040세대’ 젊은 부모들이 이사오면서 12세 이하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성동구는 관내 4만3000여 명에 달하는 65세 인구의 복지 향상을 위해 올해에 전년 대비 22억 원 늘어난 65억 원을 투입한다. 전국 최초로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담주치의가 집으로 찾아가 진료하는 ‘효사랑 건강주치의’, ‘독거 어르신 건강·안전 관리 솔루션 사업’ 등도 병행하고 있다.

정 구청장은 ‘교육’ 부문을 성과이자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정 구청장은 “취임 초부터 교육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며 “2017년

도선고등학교, 금호고등학교 2개교가 문을 열어 주민 숙원을 이뤘고 11개 권역별 체험학습센터, 성동4차산업혁명체험센터, 금호·성수 글로벌체험센터, 독서당인 문아카데미센터 등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육 성동구’ 이미지로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성동구는 교육특구 지정, 평생학습도시 인증, 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 인증 등 쾌거를 이뤘다. 정 구청장은 “2015년 지정된 1차 교육특구 기간이 종료되고 지난해 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교육특구로 재지정됐다”며 “성동구는 학생 1인당 교육경비 지원액이 서울시 자치구 중 2017년 1위, 2018년 3위, 2019년 2위로 올해도 60억 원 규모의 교육경비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성동구는 왕십리뉴타운 중학교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구청장은 “왕십리뉴타운은 6008가구가 거주하는 대규모 주거단지이고, 단지 내 숭실초등학교는 매년 200여 명의 신입생이 입학하고 있어 중학교가 필요하다”며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학교 신설에 반대하는 서울시교육청과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전국 최초, 전국 최고’ 수식어가 붙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면서도 “장기적 도시계획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소소하더라도 주민이 원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을 병행해 ‘주민 만족 최고’의 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진희 기자 jh6945@

양재 R&D 혁신지구에 ‘AI 육성 앵커시설’

국제 설계공모 ‘메가 플로어’ 당선… 2022년 개관

서울 양재 연구개발(R&D) 혁신지구 내 품질시험소 별관 부지(5098.7㎡)에 인공지능(AI) 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앵커시설이 지하 1층~지상 7층(연면적 1만220㎡) 규모로 들어선다.

서울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메가 플로어’를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 당선팀에게는 계획·중간 및 실시설계 계약 우선협상권이 주어진다.

새롭게 들어서는 앵커시설은 AI 분야 스타트업 기업의 육성(인큐베이팅)과 교육을 지원한다. 또 양재 일대의 AI 연구소, 기업과의 협업이 이뤄지는 AI 기업을 육성·연구한다. 관련 스타

트업과 연구자 약 410명이 입주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AI 연구·지원에 최적화된 공간을 창출하고 정형화된 연구·업무 공간에서 벗어나 이용자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산할 수 있도록 국제설계공모를 실시했다.

당선작 ‘메가 플로어’는 ‘시너지를 생성하는 공유 오피스’라는 콘셉트로 다양한 유형의 연구 공간을 제시했다. 1, 2층은 AI 관련 기업·연구소를 위한 열린공간이 될 수 있도록 오픈라운지, 메이커 스페이스&소룸, 경영컨설팅 및 카페 등을 배치했다.

입주 연구자가 근무하는 3~7층에는 회의실 협업 공간과 휴게 공간, 오픈키



‘AI산업 육성 앵커시설’ 국제 설계 공모 당선작 조감도. 사진제공 서울시

친을 조성한다. 업무를 집중할 수 있는 공간과 자유로운 생각을 나누는 교류·협업 공간을 함께 뒀 기존 업무 공간을 탈피한 새로운 R&D 공간의 비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시는 11월까지 앵커시설을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착공해 2022년 11월 준공할 계획이다.

김진희 기자 jh6945@

강남구, 청담역 보행구간 ‘미세먼지프리존’ 조성

서울 강남구는 전국 최초로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지하 보행구간에 ‘미세먼지프리존’을 조성하고 29일 개장식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보행구간 650m에 설치된 ‘미세먼지프리존 청담’은 대기오염이 심한 날에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도록 만든 지하 정원이자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공기청정기 72대와 미디엄필터가 설치된 5대의 공조기가 미세먼지 90% 이상을 제거해 깨끗한 공기 질을 유지한다. 또 ‘스마트케어 시스템’을 통해 모바일로 실내 대기 질과 온·습도를 모니터링한다.

보행구간에는 숲·뜰·못·별 등 자연을 주제로 바이오월(벽면식물)과 인공폭포, 인터랙티브 아트영상 등이 설치됐다. 휴식 공간인 ‘강아래 우슴마당’에선 달 조형물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다.

또한 무인스마트 도서관을 통해 간편하게 책을 빌리고 곳곳에 마련된 휴게공간에서 독서할 수 있다.

안재혁 도시환경국장은 “강남구는 미세먼지 측정기 등 총 145대를 연계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고농도지역을 우선 청소하는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으로 ‘필(必)환경 도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서울시민 10명 중 7명 “사회 불평등 심각”

부동산 등 자산형성 분야 ‘최악’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이 우리 사회 전반의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우리 사회 공정성에 대한 서울시민의 생각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5일부터 7일간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만18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전화 임의결기)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했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8.8%가 우리 사회 전반의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분야로는 부동산

상 등 자산형성(41.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정치 및 사회참여(24.1%), 취업·승진 등 일자리(20.8%) 분야가 뒤를 이었다.

특히 부동산 등 자산형성 불평등의 심각성을 가장 크게 느끼는 연령대는 30대(51.7%)인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의 경우 정치 및 사회참여의 불평등(50대 32.5%, 60세 이상 39%)을, 20~30대의 경우 취업·승진 등 일자리의 불평등(20대 28.3%, 30대 23.7%)을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는 시민의 78.6%가, 부동산 등 자산 불평등은 시민의 83.8%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소득 불평등의 원인으로는 ‘부동산 등 불가상승 대비 임금 인상을 저조’, 자산불평등 원인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실패’를 각각 1순위로 꼽았다.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 불평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시민 10명 중 6명(64.4%)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자산형성 기회(69.1%), 계층이동 가능성(66.5%), 좋은일자리기회(61.5%) 등의 측면에서 현재 청년세대의 상황이 기성세대보다 불리한 출발선에 놓여있다는 인식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 주관적 계층의식에 관해 묻는 결과 자신이 사회의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의 15.5%, 중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45.6%,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8.9%였다.

설경진 기자 skj78@

송파구 무료공연 ‘수요 무대’… 29일 새단장

서울 송파구는 29일부터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 다양한 문화공연을 무료로 즐기는 ‘수요 무대’를 송파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새롭게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요 무대’는 구민의 일상 속 즐거움을 전하기 위해 2007년 5월 시작된 송파구의 대표 공연문화 복지사업이다. 클래식 연주, 뮤지컬, 연극 등 다양한 분야의 공연이 연중다채롭게 펼쳐진다. 지난해에는 특별 공연을 포함해 총 14회 공연에 총 6320명의 관객이 다녀갔다.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수요 무대’는 겨울방학을 맞아 1~3월까지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뮤지컬, 다원 예술, 국악

뮤지컬로 꾸며진다.

이달 첫 공연은 가족 뮤지컬 ‘페페의 꿈’이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 미녀와 야수 등 명작동화를 연극과 영상, 클래식 음악으로 풀어낸다.

송파구 ‘수요 무대’는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관람 신청은 송파구청 홈페이지 ‘수요무대 예약’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공연 당일 현장 입장도 가능하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구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는 수요무대를 2020년을 맞아 더욱 재밌고 다채로운 공연들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자고 나니 차가 더 똑똑해졌네



완성차 업체가 최근 다양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드웨어인 자동차 뼈대는 유지하되 무선 자동 업데이트로 최신 모델 못지않은 첨단 기능을 적용하고 있다.

사진제공 뉴스프레스UK



김준형의 **오토인사이드** SW 자동 업데이트

테슬라, 출고후에도 '안전·편의사항' 무선으로 개선 제네시스 G90·8세대 쏘나타, 최신 내비 자동 갱신 소프트웨어 결함도 스마트폰처럼 업데이트로 해결

자동차 기술 경쟁이 격화하면서 통상 7년 이던 제품 교환 주기가 5년으로, 짧게는 4년 까지 줄고 있다. 새 모델이 나올 때마다 속속 첨단 기술도 등장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른바 '기술 역전'도 나온다. 예컨대 2018년 말 등장한 제네시스 G90에도 없는 첨단 장비가 지난달 출시한 현대차 그랜저에는 장착되는 경우다. 기술 개발이 속도를 내면서 오늘 사들인 신차가 내일이면 '기술적인 구형'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노트북과 휴대전화의 구매한 지 몇 달 만에 구형이 돼버리는 것과 비슷하다. 그만큼 '자동차=전자기기'라는 등식도 확산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영유아 안전 기능 추가 = 결국 완성차 메이커는 첨단 통신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뼈대인 하드웨어는 같지만 그 안에 담긴 SW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기술을 다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런 기능을 활용하면 차는 더욱 편리해지고 더 안전해진다. 최근 뒷자리에 영유아를 남겨놓고 실수로 자리를 떠나는 운전자가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뜨거운 여름이라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완성차 회사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

고장치를 다시 제공하기도 한다. SW 업데이트를 통해 경고장치를 추가해주는 방식이다. 별도의 하드웨어 추가 없이, SW 업데이트를 통해 경고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이미 차에 장착된 '안전띠 미착용 경고'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의 경우 새로 SW를 내려받으면 차 안의 온도를 최고 38~40도로 유지할 수 있다. 설정 수치 이상으로 실내 온도가 상승하면 스스로 환기하고 에어컨을 작동한다.

◇국산차 최초 무선 업데이트는 제네시스 G90 = SW 무선 업데이트는 국산차도 시도 중이다.

앞서 쌍용차 역시 G4 렉스턴 출시에 맞춰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를 준비한 바 있다. 서비스센터에 진입하는 순간, 자동으로 내비게이션 지도가 업데이트되는 방식이었다. 다만 양산 차에 적용하지는 않았다.

양산 국산차 최초의 무선 업데이트는 현대차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G90'에서 이뤄졌다. '플래그십 자동차'는 그 회사를 대표하는, 대부분 최고가의 차량이다.

이른바 '자동 무선 업데이트(OTA: Over The Air Update)' 방식을 통해 내비게이션 최신 지도를 업데이트했고, 관련 SW도 내려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내려받아 SD카드에 저장하고, 다시 10~20분 차에서 설치하는 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무선 업데이트는 이 모든 과정을 자동으로 진행한다.

운전 중에 업데이트를 시도하면 운전자에게 방해가 될 수 있는 만큼, 시동이 꺼진 뒤에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방식도 나왔다.

현대차 8세대 쏘나타의 경우 고객이 업데이트를 선택하면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완료 후 주요 업데이트 내용을 친절하게 알려준다. 업데이트 과정은 운전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따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내비게이션 모니터 또는 스마트폰에 안내 팝업으로 알려준다.

◇SW 자동 업데이트 활용 범위는? = 내비게이션 자동 무선 업데이트는 커넥티드카 서비스의 핵심 기술 중 하나다.

향후 관련 SW업데이트가 활성화하면 고객의 사용 패턴과 선호 기능 등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이 가능해진다.

정기적인 SW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지도는 물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불편했던 점을 끊임없이 개선할 수 있다.

예컨대 새로운 엔진 진단 시스템을 SW 업데이트를 통해 추가할 수 있고, 전혀 다른 디자인의 계기판도 내려받을 수 있다. 지금도 4~5가지 계기판 디자인 가운데 주행 상태에 따라 한 가지를 고를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질 전망이다.

소프트웨어 관련 제작결함(리콜) 시정도 순위위진다. 2018년 사회적 논란이 됐던 BMW 디젤의 화재 사고의 경우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의 기본적인 설계를 포함해 이를 작동하는 SW 결함 논란도 뒤따랐다. 이 경우 SW를 업데이트하면 일부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

설계 단계에서 발생한 결함의 경우 아쩔 수 없이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제작결함을 시정받아야 하지만, SW 문제는 업데이트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 물론 자발적 제작결함 시정인 만큼 관계부처의 승인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 김준형 기자 junior@

〈'전격 Z 작전' 대사〉

“키트, 빨리 와”...미드처럼 호출하면 차가 온다

테슬라 '스마트 서먼' 기능 차 인근 지역에서 리모컨 누르면 내비게이션 활용해 '자율주행' 작년 말 공개 SW 10.0에 담겨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10.0을 공개했다.

미국을 시작으로 개선된 소프트웨어를 차례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 테슬라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공개할 때 이를 이른바 OTA(Over-The-Air) 방식으로 배포한다.

USB를 포함한 '저장 장치'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담아 차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차 안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새 기능

을 손쉽게 다운로드하는 형태다.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10.0에는 여러 편의장치 및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추가됐다. 이 가운데 주차 상태의 자동차를 오너 코앞까지 자동으로 이동시켜주는, 이른바 '스마트 서먼(Smart Summon)' 기능이 눈길을 끈다.

스마트 서먼에서 '서먼(Summon)'은 소집 또는 호출을 뜻한다. 한마디로 주차장에 오롯하게 주차된 테슬라를 리모컨 하나로 운전자 코앞까지 불러올 수 있다.

오너가 자신의 주차된 테슬라를 겨냥해 리모컨을 누르면 스스로 시동을 걸고 운전대를 조작하며 주차상태를 벗어난다. 슬금슬금 오너 앞까지 이동한 뒤 작동을 멈춘다. 이동하는 시간 동안, 차 주변을 둘러싼 갖가지 주차 센서와 카메라를 이용해 숨 가쁘게 주변을 파악한다.

돌발 장애물이 발생하면 그 자리에 즉시 차를 세우고 경고음을 낸다.

예를 들어 넓은 야외 주차장에 테슬라를 주차한 후 귀가를 위해 주차장까지 가야 하는데, 우산도 없는 상황에서 소나기가 쏟아진다면 이런 기능이 유용하다. 이럴 때 테슬라 소프트웨어 10.0을 내려받아 두었다면 굳이 주차된 차까지 첨병거리며 뛰어갈 일이 없다. 운전자는 서 있는 자리에서 버튼 하나로 '스마트 서먼' 기능을 활성화해 차를 코앞까지 불러올 수 있다.

테슬라의 스마트 서먼 기능은 철저하게 GPS와 내비게이션에 표시된 지도를 기반으로 움직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하주차장에서는 사용이 제한적이다. 나아가 오너와 테슬라의 주차 위치가 너무 멀거나 주변에 장애물이 많아도 방

를 받을 수 있다.

물론 테슬라 스스로 충전기를 뺏을 재주가 없으니 '충전 상태'에서도 스마트 서먼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무엇보다 내비게이션 지도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범위도 제한적이다. 예컨대 매끈하게 포장된 주차장 또는 이면도로에서 테슬라를 호출했는데, 슬금슬금 이동하던 차가 그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하는 경우다. 이런 상황은 십중팔구 '지도상'에서 도로가 끊겨 있는 경우다. 지도 위에 도로가 끊겨 있으므로 테슬라 스스로 '더는 진행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하는 것.

상황에 따라 사용이 제한적이지만 처음 차를 구매했을 때 없었던 기능이 새로이 추가되는 일은 오너 입장에서 반갑기 그지없다. 이 역시 OTA 방식의 업그레드 기술 덕이다.

테슬라의 스마트 서먼은 '안전'에 극도로 치중한 나머지 소극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그래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때 분명 개선된 시스템이 등장할 테니까.

김준형 기자 junior@





Class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세계 최경량 세계 최고 고반발 장타 설계기술력 - 뱅

Par5 3Shot 합산

+100_{yd} 더 나간다

1st Shot +30~50yd
세계 최고 고반발 드라이버

+

2nd Shot +30~40yd
세계 최초의 초고반발 우드

+

3rd Shot +30~40yd
세계 유일한 고반발 아이언

×

205g~ 44%더 가벼운
세계 최경량 기술

×

최적화 기술 적용

BIG BANG Light

모든 업체가 뱅골프의 고반발 기술을 따라하고 경량화 기술을 쫓아오지만 이미 뱅골프는 제3의 신기술-최적화 기술로 골프를 쉽고 편하게 하고 있다



PGA 톱 프로처럼 클럽을 만들어 준다면
나도 프로선수 처럼 잘 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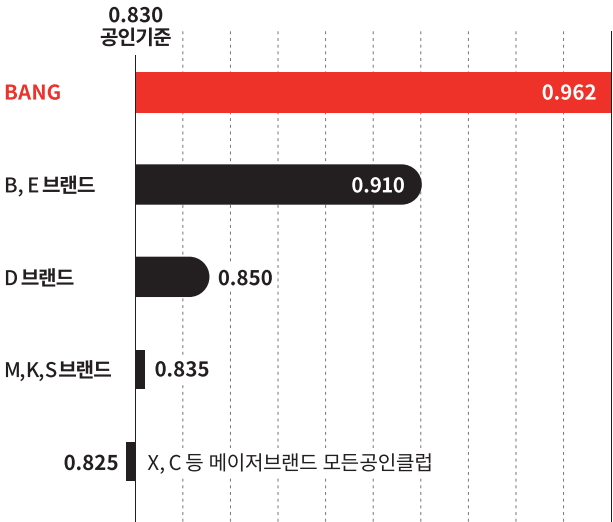
프로 골퍼가 잘 치는 것은 뛰어난 스윙 기술과 최적화된 골프채 덕분입니다. PGA 톱 프로는 첨단 스윙분석을 거쳐 그 프로에게 최적화된 수십 개의 클럽을 만든 후 그중에서 가장 감이 좋은 것을 골라 씁니다.

스윙기술이 부족해도 **세계 최고 고반발 기술 + 세계 최경량 기술**이 있는 뱅골프 클럽으로 PGA 프로처럼 **최적화 기술**을 적용한 골프채를 만들어준다면 나도 **+30yd** 더 잘 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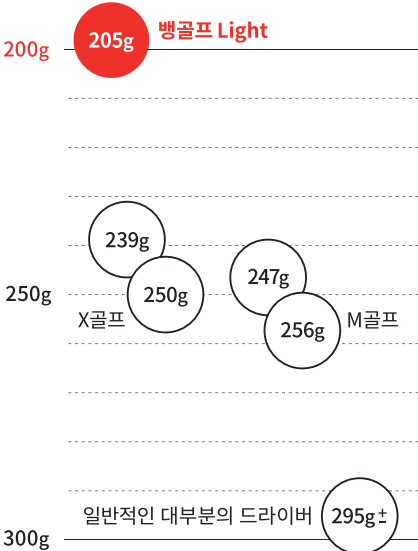
VVIP 고객님의 프로선수와 같은 관리 시스템으로 최적화 기술 적용 및 사용 후 수정 최적화

品格

고반발 기술 격차



경량화 기술 격차



최적화 기술 수준 격차

	BANG Light	타사
드라이버 사양 종류	999,000가지	확실적인 몇가지
드라이버 무게 종류	205g ~ 325g까지 120가지	단일 무게 혹은 몇가지
드라이버 강도 종류	XXX ~ R6까지 36가지	S, SR, R, L 등 몇가지
우드/아이언 강도종류	XXX ~ R6까지 36가지	S, R 두가지 안팎
아이언무게(9번 기준)	남 333g 여 312g	남 351g ~ 395g 여 326g ~ 368g
아이언 샤프트 종류	0.335 inch 최초 2~11번까지 번호별 샤프트	대부분 한가지 길이를 번호별로 잘라서 사용
헤드 무게 조정	120가지 헤드 무게로 헤드 교환 납을 사용하지 않음	납을 첨가하여 무게조정
드라이버 100yd 골퍼	스윙웨이트가 A8까지 있어서 누구나 딱 맞는 가벼운 클럽이 있다	무거워서 치기 불편하다

“공정한 출발선 보장 ‘사람특별시’ 만들 것”

박진영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

청년 취업·신혼부부 주거 등 돌봄의 공백 메우는 포용도시
주거가 계층 나누는 부동산의 불공정 없애는 데 주력할 것

“시민이 시장인 ‘사람특별시’ 서울이 되도록 하겠다.”

박진영<사진>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27일 “잘 듣고, 잘 말하는 게 시민소통 기획관의 역할인 만큼 시민 의견을 잘 반영한 정책을 만들고, 필요한 때 필요한 분에게 정확히 전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기획관은 “과거 행정의 대상이자 ‘민원인’이었던 시민은 점점 참여가 늘어나면서 ‘고객’이 됐다”며 “지금은 ‘시민이 서울 시장’이라는 기조 아래 주권자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참여예산제, 시민숙의예산제, 정책토론회 등 ‘민주주의 서울’ 정책은 시민이 직접 공론장을 형성해 토론하고 그 정책이 채택되는 과정”이라며

“시민이 시장이라는 방향 아래 도시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기획관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서울시가 하는 것은 많지만 정작 뭘 하는지는 모르겠다’는 비판에 대해 오히려 아쉬워했다. 그는 “기존 문법에 따르지 않고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제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며 “서울시는 포용 도시, 전환 도시, 협치 도시 세 가지 콘텐츠를 2011년부터 8년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 기획관은 갈등구조를 하나로 묶는 ‘포용력’을 강조했다. 그는 “어떤 도시에 큰 건축물이나 조형물을 세워 한 부분을 변화시키는 건 쉽지만 갈등 치유, 포용 등 시대 흐름을 반영한 정책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우리 사회의 빈 사각지대를 새롭게 행정 영역으로 끌고 들어온 변화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올해 신년사에서 강조한 ‘공정한 출발선’과 궤를 같이한다. 박 기획관은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한다는 것은 ‘포용도시’라는 흐름을 더 강조하겠다는 것”이라며 “빈부 격차, 세대·노사 갈등처럼 모든 갈등 구조를 해결하지 않고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갈등이라는 부작용이 생긴 부분을 치유하고 미래로 전진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기획관은 “청년 취업을 돕는 정책, 집이 없어 결혼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신혼부부의 주거를 지원하는 정책, 출산 후 여성의 퇴사를 막기 위한 돌봄시스템과 같은 공백에 주목하고 투자하는 게 바로 포용도시이자 사람특별시 서울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거가 계층을 나누는 현 부동산 문제도 도시의 포용력과 관련됐다”며 “포용도시의 일환으로 부동산으로 촉발된 불공정을 없애는 게 올해 집중할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희 기자 jh6945@ 사진 고이관 기자 photoeran@

포스코건설, 인천공동모금회에
사회공헌성금 2억5000만원 기탁



포스코건설은 23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사회공헌성금 2억5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27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아동과 노인 등 인천 지역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2007년부터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기탁하고 있다. 이렇게 모인 돈만 지금까지 30억5000만 원에 이른다.

최종진 포스코건설 경영지원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서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대회 첫 우승에 성공한 한국 축구대표팀 선수들과 김학범 감독이 우승 트로피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방콕/연합뉴스

도쿄행 티켓·우승 트로피 다 잡은 김학범

AFC U-23 챔피언십 사우디전, 정태욱 연장 결승골로 1-0 승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에서 대한민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1-0 승리를 거두며 첫 우승을 달성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3 축구대표팀은 26일 태국 방콕의 라자망갈라스 타디움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와의 2020 도쿄올림픽 아시아 최종예선 겸 AFC U-23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1-0으로 승리했다.

양 팀 모두 선제골을 기록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전후반 90분과 연장 전반전 15분까지 득점을 내지 못했다. 연장 후반에도 팽팽한 분위기가 이어졌고, 승부차기가 유력해지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연장 후반 8분 승부가 갈렸다. 연장 후반 7분 김대원(대구)이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어냈다. 이후 이동경(울산)이 예리하게 왼발로 잡아 찬 공을 문전에서 정태욱(대구)이 헤딩골로 성공시켰다.

이로써 한국은 이 대회에서 4차례 만에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AFC U-23 챔피언십 역대 대회 처음으로 전승(6승) 우승의 쾌거까지 일궈냈다.

한편 이번 대회 MVP는 김학범호의 중원을 든든히 지킨 원두재(울산)에게, 베스트 골키퍼상은 6경기에 모두 풀타임 출전하며 3실점만을 허용한 송범근(전북)에게 돌아갔다.

유정선 기자 dwt84@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26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62회 그래미어워즈 시상식에서 래퍼 릴 나스 엑스와 함께 '올드 타운 로드'를 공연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로이터연합뉴스

방탄소년단, 한국가수 첫 그래미어워즈 공연

래퍼 릴 나스 엑스와 ‘올드 타운 로드 올스타즈’ 무대 꾸며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한국 가수 최초로 그래미어워즈 시상식에서 공연을 펼쳤다.

방탄소년단(BTS)은 26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스테이플스센터에서 열린 제62회 그래미어워즈 시상식에서 래퍼 릴 나스 엑스와 함께 ‘올드 타운 로드 올스타즈’(Old Town Road All-Stars) 무대에 올랐다. 이 무대에는 컨트리 가수 빌리 레이 사이러스, 프로듀서 디폴로, 어린이 컨트리 가수 메이슨 램프 등도 함께했다.

방탄소년단(BTS)은 릴 나스 엑스 무대 두번째 회전 무대에서 등장했다. 멤버 7명 모두가 무대에 올라 ‘올드 타운 로드’의 한

파트를 열창했다.

무대를 마친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지난해 시상상을 하며 꼭 돌아오겠다는 말을 했었는데 현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감격을 전했다.

이들은 “환상적인 무대로 이 자리에 다시 오게 되어 영광이다”라며 “그래미어워즈 무대는 모든 아티스트들의 꿈인데, 그 꿈에 닿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탄소년단(BTS)은 지난해 그래미어워즈에서는 시상자 자격으로 처음 무대에 올라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기정아 기자 jjonga1006@

기업 경영 ‘파괴적 혁신’ 주창한 크리스텐슨 하버드대 교수 별세

기업 경영 분야에서 ‘파괴적 혁신’ 개념을 주창한 것으로 유명한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가 23일(현지시간) 67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다.



그는 1997년 발간한 저서 ‘혁신기업의 딜레마’를 통해 파괴적 혁신 개념을 대중에게 소개했다. 파괴적 혁신은 기업이 단순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시장 밑바닥을 공략해 결국 기존 시장을 파괴하고 새로운 시장의 지배자가 될 수 있다는 개념이다.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출신인 그는 예수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모르몬교)의 독실한 신자였다. 1971~1973년 선교사로 한국에 와 춘천, 부산에서 활동했고 이후에도 수차례 방한한 지한파 학자이기도 했다. 선교사 시절에 ‘구창선’이라는 한국 이름도 지을 만큼 한국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석동 기자 hong@

‘NBA 전설’ 코비 브라이언트 사망 헬기 추락사고로…13살 딸도 함께

미국프로농구(NBA)의 전설적인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41·미국)가 26일(현지시간) 헬리콥터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헬기 탑승자는 총 9명이며, 전원 사망했다. 탑승자 중에는 코비 브라이언트의 딸도 있었다.



AFP통신에 따르면 코비 브라이언트를 포함해 9명을 태운 헬리콥터는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로부터 북동부 65km 떨어진 칼라바사스에서 추락했다. 이들은 코비 브라이언트의 둘째 딸인 자야나(13)의 농구 경기 참가를 위해 이동 중이었으며, 자야나의 농구단 팀원, 팀원의 부모 중 한 명, 조종사 등이 사망자 명단에 포함됐다.

코비 브라이언트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LA 레이커스에서 활약했다. 현역 당시 5번의 NBA 챔피언십과 18번의 올스타에 이름을 올리며 ‘NBA의 전설’이 됐다. 브라이언트는 은퇴 후 영화계에서도 활약하기도 했다. 기정아 기자 jjonga1006@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전보 △일정행정관 이승규

◆기획재정부 ◇실장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백승주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국장급) 승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 서한순 ◇과장급 전보 △인사혁신국 심사임용과장 임병근

◆산림청 ◇과(팀)장급 전보 △산림병해충방제과장 강혜영 △혁신행정담당관 김기현 △국제협력담당관 안병기 △해외자원담당관 함태식 △산림정책과장 하경

수 △산림복지정책과장 정철호 △백두대간보전팀장 김주미 △영주국유림관리소장 김명중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스마트해양수산총괄지원단 단장 최상희 △해운재건총괄지원단 단장 윤희성

◆코스콤 <신규 임원 선임> ◇상무 △클라우드사업단장 권태혁 <승진> ◇본부장 △금융사업본부장 황선정 △IT인프라본부장 최병규 △데이터테크사업본부장 허수영 <전보> ◇본부장 △디지털전략본부장 엄재욱(전무이사) △경영지원본부장 권형우(상무) △디지털인증사업단장 김계영

부음

▲함숙녀 씨 별세, 김연선(전 현대종합상사 상무)·연숙·연옥·연일 씨 모친상, 정환영(전 만도 전무)·박종복(SC제일은회장) 씨 장모상, 김정선·윤일영 씨 시모상 = 27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29일 낮 12시, 02-2258-5940

▲김인숙(전 현수회 회장) 씨 별세, 고정호(전 한라그룹 전무이사) 씨 모친상, 임중수(성균관대 교수) 씨 시모상, 고유선(연합뉴스 기자) 씨 조모상 = 27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29일 오전 10시, 02-2227-7594

▲남창현 씨 별세, 양승조(충남도지사) 씨 장인상 = 26일, 대전 건강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9일 오전 7시 30분, 042-600-6660

▲서영호 씨 별세, 서현석(코스모스제과과장)·은성(통일연구원 연구원) 씨 부친상, 박세영(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 씨 시부상, 우은식(뉴시스 스포츠부장) 씨 빙부상 = 27일,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202호, 발인 29일 오전 8시, 02-958-9548

▲윤길순 씨 별세, 최병천(소독주도성장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씨 모친상 = 27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29일 오전 7시, 02-2227-7547

여의도 막장 드라마 주인공 ‘4월 공모전’

한국 정치는 막장 드라마다. 막장의 극적인 요소를 다 갖췄다. 화려한 경력의 주인공에 시정잡배 뺨치는 막말, 끝없는 싸움, 온갖 술수를 동원한 여론몰이는 기본이다. 한때 사라졌던 단식과 삭발이 부활했다. 스스로 만든 법을 밥먹듯이 위반하고 거액(연봉 1억5000만 원)을 챙기는 물염치까지 더해지면 한 편의 완벽한 코미디가 완성된다.

국회는 세상의 잘난 선수들이 다 모인 곳이다. SKY 출신에 장·차관, 검사·변호사, 대학교수가 널려있다. 죽히 대한민국 0.1% 최상위 엘리트 집단이다. 여의도에 첫발을 들여놓을 때만 해도 모두 애국자다. “국민 목소리를 하늘같이 받들겠다”고 합창한 그들이다.

실상은 어떤가. 거꾸로다. 최고의 덕목인 애국은 밥그릇 지키기로 변질된다. 국민의 목소리는 당의 명령으로 대체된다. 조지 오웰의 소설에 나오는 ‘빅 브라더’의 명에 따라 움직이는 거수기가 되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궁전에 들어오면 땀과 욕탄전도 서슴지 않는다. 헌법기관의 자존심과 최소한의 품격은 온데간데없다. 갈등 조정자가 아니라 갈등 조장자로 전락했다.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는커녕 걱정거리가 된 지 오래다.

잘난 자들이 배지를 달면 걸리는 이른바 ‘집단망각증’이다. 조국 사태와 패스트 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이를 생생하게 목도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조국 전 법무장관 임명을 밀어붙여도 투쟁 이력이 대단한 민주당 의원들은 침묵했다. 표를 먹고사는 정치인들이 여론을 거스른 비정상적인 정치에 모두 동의해서였을까. 아니라고 본다. 패스트트랙 법안 육탄저지에 동원돼 재판을 받는 한국당 의원들도

데스크칼럼

이재창

오프라인뉴스룸 에디터



자의는 아니었을 터다.

이유는 간단하다. 생존을 위해서다. 당에 반기를 들었다간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다. 진보·보수의 극단적인 진영 대결로 치닫는 당론 정치가 낡은 폐해다. 박근혜 정권 시절 눈엣가시인 친이 공천 학살로 빛어진 김무성 한국당 대표의 ‘옥새 나르샤’ 파동이 아직도 생생하다. 당론인 공수처 설치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문빠(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의 문자 폭탄을 받았다. 입법기관인 의원이 헌법적 자유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우리 정치 현주소다.

그러니 정치 실종은 필연적이다. 진영 논리가 판치는 세상에선 진보나 보수의 리더는 열성 지지자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 모두가 강경 일변도로 가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기조에선 30%의 열성 지지자만 보고 가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노무현 학습효과’다. 이라크 파병과 대기업과의 협력 등 합리적 실용주의로 노선을 바꿨다 지지자들이 등을 돌려 위기를 맞았던 노 전 대통령을 옆에서 지켜본 문 대통령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 실패한 소주성(소독주도성장) 정책을 버리지 못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여권의 강경에 야권은 협상을 거부한 채 무조건 반대다. 강대강 대결이다. 협상이

될 리 만무하다. 여야가 만나면 얼굴을 붉히고 돌아서 상대를 비난한다. 여당은 힘으로 밀어붙인다. 수적 열세인 야당은 거리로 나간다. 이 같은 허무개그는 20대 국회 내내 이어졌다. 법안 처리율 역대 최저 등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은 당연한 결과다.

그런 정치권이막장 드라마의 새 주인공을 뽑는다고 난리다. 21대 총선(4월 15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 표 행사로 4년 만에(?) 왕 대접을 받을 시즌이지만 국민은 마냥 달갑지만은 않다. 당장 ‘깜깜이 선거’다. 게임의 룰 예기다. 제1야당을 뺀 채 정한 게임 규칙이 요즘 초등학교 반장 선거만도 못하다는 지적은 차치하고라도 그 내용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핵심인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아는 국민은 별로 없다. 말 그대로 복잡한 4차 방정식이다. 그렇다고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심상정 정의당 대표)며 은근슬쩍 넘어갈 일은 아니다. 내한 표가 선거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표를 던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다수 국민이 차악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는 점이다. 야당 심판론을 내건 여나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야나 미덥지 못하긴 마찬가지다. 소주성과 반시장 정책으로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받아든 여당을 찍자니 걱정이 앞선다. 대안 세력이길 포기한 듯 사분오열된 한심한 야당에 표를 주기는 더욱 싫다. 그렇다고 프랑스의 마크롱 같은 대안도 없다. 새 주인공을 뽑아도 막장 드라마가 변할 거라고 보는 국민은 별로 없다. “지지정당이 없다”는 유권자가 27%(17일 갤럽 조사)에 달하는 이유다. 차선도 아니고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국민은 한숨이 절로 나온다.

leejc@

사설

우한 폐렴 경제충격 최소화 대책 만전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중국에서 번지는 ‘우한(武漢) 폐렴’이 겹잡기 어려운 사태로 커지고 있다. 중국 당국이 초유의 도시봉쇄와 교통통제에 나섰지만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초기 대응 실패로 중국에 서만 벌써 270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의심 환자는 6000명에 육박한다. 사망자도 80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염병은 전 세계로 퍼지는 양상이다. 홍콩, 마카오, 대만 등 중화권뿐 아니라 태국, 일본,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네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앞으로 통제능력의 상황으로 악화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중국의 설 명절인 춘제(春節)와 겹쳐 수억 명이 중국 전역을 이동하면서 질병이 급속도로 확산할 수 있다. 과거 2003년 중국에서 시작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과, 2009년의 멕시코발 신종플루,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과 같은 심각한 재앙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공포가 커진다.

우리 정부도 비상이 겹쳤다. 질병관리본부는 28일부터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단계를 강화했다. 각 지자체에도 선별진료소 및 격리병원 확충, 감시 및 격리관리 인력 확보 등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다. 그럼에도 이미 국내 방역망이 뚫려 환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치료제 도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모든 대응책을 동원해 질병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우한 폐렴은 연초부터 한국 경제에도 심각한 리스크로 덮쳐 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바닥인 소비와 수출, 투자를 더 가라앉힐 요인이다. 정부는 10년 만에 가장 낮은 작년 2.0% 성장률에서 올해 2.4% 성장 목표를 세우고, 소비와 투자 등 내수진작으로 경기를 반등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시작부터 계획이 틀어질 공산이 크다.

전염병 확산은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가져온다. 과거 사례도 그렇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분석에 따르면 2003년의 사스는 그해 2분기 우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포인트(P) 낮췄다. 2009년의 신종플루도 연간 성장률을 0.1~0.3%P, 2015년의 메르스 사태는 0.2%P 떨어뜨린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 관광객(유커) 감소의 영향이 크고, 국내의 개인소비도 움츠러들면서 서비스업에 직격탄으로 작용한 까닭이다. 특히 이번 우한 폐렴은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완화가 기대되는 시점에 찬물을 끼얹는 사태로 경제 충격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긴급회의를 여는 등 경제에 미칠 여파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지난 주부터 국제금융시장도 출렁거리고 있다. 자칫 상황이 급속도로 나빠질 가능성에 대한 긴장을 조금도 늦춰서는 안 된다. 우한 폐렴의 후폭풍에 따른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임기훈의 독설(督說)

IT중소기업부 차장



검열. 사전적 의미는 ‘언론, 출판, 보도, 연극, 영화, 우편물 따위의 내용을 사전에 심사해 그 발표를 통제하는 일’이다. 공식적인 검열기관이 없는 2020년 한국에도 버젓이 ‘유사검열’은 이뤄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얘기가다.

2월13일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음란물, 불법도박 사이트 등 유해인터넷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지 1년이 된다. 표면적으로는 ‘불법촬영 동영상’의 유통을 막고 유해 정보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였다. 정책을 발표하자마자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정보의 선택은 사용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명백한 검열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강행했다.

1년간의 ‘유해정보 접속차단’은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 포털에서 ‘우회접속’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어떤 페이지를 먼저 참고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검색 결과가

검열기관은 분명 존재한다

쏟아진다. 막아도 볼 사람은 다 본다는 얘기가. 여기에 구글은 최근 접속 차단을 피해 우회접속을 가능케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방통위의 조치가 오히려 ‘악성’ 우회접속 기술만 발전시킨 꼴이 됐다. 심지어 작년 하반기에는 방통위 조치가 기본권 침해라는 내용의 위헌 심판까지 제기됐다. 방통위가 사실상 검열기관이라며 ‘조롱’당하는 배경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최근 방통위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웹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주요 추진 과제로 소개했다.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단순히 음란물과 도박을 막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방통위의 접속제한은 현 정부의 이른바 ‘가짜뉴스’ 대응책과 궤가 같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천명했다. 여기에 방통위는 올해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민간 ‘팩트체크’ 기구 설립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내놴다. 언론통제 및 검열 논란을 의식한 듯

설립만 지원하고 기관 운영과 팩트체크 판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말로 선을 지킬 수 있을까. 형세를 들여서 설립을 지원하는 기관에 정부의 관리감독이나 입김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정보통신업계 한 전문가는 “기관에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가 내려올 수도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 팩트체크 기관에 개입을 할 것이 자명해보인다”고 말했다. 게다가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편향성 논란이 있는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출신이다. 팩트체크 기관 설립 방침이 공개된 즈음에 임명된 방통위 상임위원(차관급)은 김창룡 인제대 교수였다. 방통위가 가짜뉴스 전담기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방통위는 5세대(5G) 이동통신 산업과 관련해 각종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인터넷 사업자(ISP)와 콘텐츠 제공업체(CP) 간 망이용 대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하는 등 할 일이 태산이다. 가짜뉴스에만 집중할 시기가 아니다. shagger1207@



관절 통증 치료법 ‘경피적혈관색전술’

경피적혈관색전술은 주로 간암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나 출혈 부위 혈관을 막는 데 사용돼 왔다. 이는 가느다란 관을 혈관 속에 삽입해 특정 혈관을 차단하는 방법이다. 전신마취가 필요 없고 1~2mm 정도만 피부에 흡을 내고 시행하는 방법이라 간편하고 신속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관절 부위 통증, 염증이 심한 사람은 염증으로 인해 병변 근처에 불필요한 신생혈관이 많이 생긴다.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 주변에 신생혈관이 많이 생기면 통증이 더욱 심해지게 된다. 경피적혈관색전술은 이 신생혈관의 혈류를 일시적으로 차단해 혈류를 영양분으로 삼는 신경을 굵어 죽게 하는 원리다. 경피적혈관색전술을 위해 조영제에 색전 물질 소량을 섞어 카테터로 병변에 주입하면 색전 물질은 24~48시간 이내에 사라지게 되고 혈관은 다시 뚫리게 된다. 또한 혈류를 공급받지 못한 통증 신경은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통증이 감소된 상태가 유지된다.

필자는 2016년 국내 최초로 이 기술을 시행한 이후로 많은 환자를 직접 치료하고 있으며 이미 SCI논문을 발표해 그 효과를 학술적으로도 입증했다. 어깨, 팔꿈치, 무릎 근골격계 질환으로 통증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결과 80% 이상의 환자가 과거와 비교해 통증이 호전되고, 통증 치료를 중단하거나 치료 횟수가 감소했다. 특히 3개월 내 통증 재발률이 10% 미만으로 치료 효과의 지속력 또한 우수했다. 이러한 경피적혈관색전술은 비록 병 자체를 치료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절 통증 완화에는 명확한 효과가 있다.

다양한 취미생활의 증가와 고령층의 증가로 인해 퇴행성 관절염, 오십견 등 무릎, 어깨 및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각종 치료를 받았음에도 통증 완화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위장관 출혈 등으로 진통소염제 복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경피적혈관색전술이 가능한지 한번쯤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박상우 건국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팔다리혈관센터장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지갑을 깜빡해도 걱정없이
손만 대요

통장, 도장, 신분증 필요없이
손만 써요

이제부터 은행 갈 땐 간편하게
손만 댑겨요



[손으로 출금 서비스]
손바닥 정맥 인증 창구 출금 서비스

손으로 출금 서비스로 당신의 일상이 편안해집니다

누리세요, KB가 만드는 새로운 금융생활

세상을 바꾸는 금융 |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b KB 금융그룹**